20170108-1131-_2012528 -90216 17. 1. 6. 10:25 Page 1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17년 1월 8일(주일) 제1131호



온누리교회가 르완다에 파 준 우물 앞에서.

"선교는 온누리교회의 영적 심장입니다"

자동이체 또는 헌금봉투 선택, 중보기도, 재능기부도 후원
3대 과제 이주민 선교, 블레싱 도쿄, 중국선교센터(MCC) 건축

오늘(8일)도 '2017 선교헌금 작정행사'가 실시된다.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예배에서 나눠주는 선교헌금 작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중보기도와 재능기부 후원으로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

선교헌금 작정은 자동이체(CMS)나 헌금봉투 방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처음 자동이체 방식을 선택한 성도는 '신규 작정란'에 기입하고, 자동이체 방식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 작정란'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선교헌금 작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소속캠퍼스, 성명,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및 생년월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입해야 한다. 작정금액은 '금액란'에 체크하고,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에도 표시해야 된다.

헌금봉투 방식을 선택한 성도들은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작정금액, 선교헌금 봉투를 수령할 캠퍼스를 선택해야 한다. 헌금봉투 방식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연장을 원하는 성도들은 작정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올해 온누리선교는 이주민 선교, 블레싱 도쿄, 중국선교센터(MCC) 건축을 3대 과제로 설정했다. 이주민 200만 시대에 발맞춰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역파송한다는 비전을 품고 있다. 또한 올해는 일본에서 러브소나타가 막 오른 지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블레싱 도쿄' 행사를 개최하면서 일본 선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할 예정이다. 지금 중국에 직접 가서 선교하는 것이 몹시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직접 가는 선교보다 중국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다. 이에 따라 온누리교회는 제주도에 중국선교센터(MCC)를 건축하고 중국 교회 목회자를 재훈련시키고,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전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5면〉**. 문의: 02-3215-3616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신임 당회서기 이철 장로와 함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철 장로(OCC공동체)가 신임 당회서기로 임명됐다. 2017년 1월 1일부터 섬기게 됐다. 당회서기 이철 장로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당회서기 이철 장로는 온누리교회 OCC공동체 소속이다. 전 세브란스 병원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하나로의료재단 총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다음은 이철 장로와의 일문일답.

소감과 포부를 밝혀 주십시오.

"부족한 제가 당회서기라는 과분한 직분을 맡게 되어 걱정도 되고, 부담도 됩니다. 당회서기는 가장 낮은 곳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더 열심히 섬기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피택장로 시절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화장실을 청소하고, 쟁반을 나르는 훈련을 받았는데 그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훈련받고 부르심 받은 대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올해 사역 계획과 방향이 무엇입니까?

"올해 온누리교회 표어가 '돌이키면 살아나리라'입니다. 이 표어가 올해 사역 계획이자 방향입니다. 교회, 성도, 목회자들이 돌이키고 살아나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기획_ 〈생명의 삶〉창간 30주년 4면 사역_ 엔젤트리 여기에 전달됐다 6면 조직도_ 2017 온누리교회 조직 수정 12-16면

20170108-1131-_2012528 -90216 17. 1. 6. 10:25 Page 2

묵상하는 목수를 찾아서 13 연기하는 마리아 오미희 권사

“어딘가에 반드시 희망의 씨앗이”

묵상하는 목수를 만났다. 일터에서도 성공적으로 일하고, 신앙생활도 열심인 진짜 묵상하는 목수 말이다. 그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고,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궁금했다. 이번에는 연기하는 마리아다. 배우 오미희 권사가 그 주인공이다. 37년차 배우로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그녀를 만났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오미희 권사는 올해 37년차 배우다. 1979년 MBC 1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안방극장, 라디오, 스크린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최근에는 MBC 아침드라마 ‘좋은사람’에서 선보인 명품연기로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여배우는 일반인과는 사뭇 다를 거라고 생각했다. 가까이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편견이었다. 시원한 웃음소리가 마음을 사로잡았고, 차분한 목소리는 그녀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만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포근하고 친근함도 매력적이었다. 수많은 매력 중에서도 그녀의 가장 큰 매력은 신앙이었다. 그녀가 만난 하나님이 무척 궁금했다.

찬란한 여배우와 하나님

그녀는 천상 배우다. 하나님 앞에서도 말이다. 하나님께 캐스팅 받는 것만큼 설레고 좋은 일이 없다고 한다. 하나님이 불러만 주시면 어디든 달려가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란다. 그녀의 간증과 시낭송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 받고 회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에는 소망교도소를 다녀왔다. 그녀의 간증을 들은 재소자들이 눈물을 터뜨렸다. 눈물 한 방울 흘릴 것 같지 않던 재소자들이 말이다. 그녀는 교회사역도 꾸준히 하고 있다. 특별한 초대, 만남의 잔치, 새신자 예배를 7년째 섬기고 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KIBI에서도 사역하고 있다.

“배우는 적절한 배역에 캐스팅될 때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캐스팅만큼 짜릿한 순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불러준다면 언제든지 ‘OK’에요. 하나님이 저를 캐스팅 하시는데 ‘NO’라고 할 수 없죠.”

배우가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을 당시 그녀에게는 꿈이 없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재수해서 대학에 입학했는데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다. 그렇다고 취업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배우를 했다면 믿으시겠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방황을 했어요. 공부에도 흥미가 없었고요. 고향은 떠나고 싶은데 가출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탤런트 공채시험을 보는 거였어요.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여학생〉이라는 잡지 표지 모델을 했었거든요. 탤런트 공채시험을 봤고 단박에 합격했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데뷔와 동시에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여형사 역을 맡아 열연했다. 단숨에 큰 인기도 얻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당대 최고의 지적인 여성, 우아한 여성이라고 칭했다. 1996년에는 MBC연기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배우로서 찬란하던 바로 그 시절 하나님을 만났다.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교회는 안 다녔지만 천지창조를 믿었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일을 해도 감사하고, 삶이 감사함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아무도 교회와 예수님을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동부이촌동에 살았는데 온누리교회가 어딘지도 몰랐을 정도로 교회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 남동생이 온누리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녀를 전도했다.

“교회에 가니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찬양으로 감사하고, 헌금으로 감사하고, 예배로 감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에 다니면 좋은 일만 생기고 평안만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반대였다. 1998년 암이 발견됐다. 4개월 동안 항암치료를 받았다. 한고비 넘기나 싶었는데 더 큰 고난이 찾아왔다.

“고통은 정말 쓰나미처럼 순식간에 밀려오더라고요. 가정, 일, 돈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어요.”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 그녀를 회복시킨 것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설교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달라진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 잘못도 있었고, 저의 선택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고난이 올 것을 미리 아시고 교회로 부르신 거였더라고요.”

배우와 신앙은 참 많이 닮았다

2000년부터는 연기활동보다는 라디오 DJ활동에 집중했다. 차분하고 편안한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었다.

“여배우에게 목소리가 좋다는 칭찬은 그렇게 기분 좋은 칭찬은 아니거든요. 하용조 목사님이 제 시낭송을 들으시고 ‘자매님 목소리에는 위로가 있어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목소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목소리가 한 몫 했고요.”

그녀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다. 2005년 이스라엘에서 평화행진을 했는데 그곳에도 동행했다.

“이스라엘 평화행진에서 예수님 재림을 알리는 한복 패션쇼를 했는데 제가 대왕대비 한복을 입었어요. 저에게는 사극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포기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날 한복을 입고 하나님께 ‘저 대사도 하고 싶어요’라고 기도했더니 귀국하고 10개월 만에 퓨전사극 ‘궁S’에 황태후 역으로 캐스팅이 되었어요. 데뷔 28년 만에 하나님이 제 꿈을 이뤄주셨어요.”

그녀는 그 드라마로 다시 안방극장으로 돌아왔고, 활발하게 활동했다. 최근에는 영화 ‘푸른노을’ 촬영을 마쳤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일이 없으면 불안하기도 해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나’라고 생각한 적도 있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마음이 한결 나아요. 예전에는 힘이 들면 막 떼를 썼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급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배우와 신앙이 참 많이 닮았다고 했다. 배우가 대본을 수십 번씩 읽고, 배역에 몰입해야 연기를 잘할 수 있고, 관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듯이 신앙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신앙이 성장하고 전도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큐티를 꼭 하라고 거듭 부탁했다. 말씀만큼 귀하고,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를 맞이한 성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했다.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에요. 힘들수록 하나님의 품으로 가세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 어딘가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을 거에요. 잿더미 같은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새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이 시대 요셉을 추천 받습니다
문의: 02-3215-3196
메일: khj@onnuri.org

20170108-1131-_2012528 -90216 17. 1. 6. 10:25 Page 3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4~6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고, 얼마나 값비싼 가치가 지불되었고, 얼마나 쓰임 받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가?"입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뛰어넘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단어는 목소리(Voice)라는 라틴어에서 기원했습니다. 소명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해야 할 일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소명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소명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앞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부르심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내 특별한 보물이며, 내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입니다.

보물이 되는 세 가지 이유

보물이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부여된 가치에 의해서 보물이 됩니다. 돈은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종이에 가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사실 그 종이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돈에 쓰여 있는 숫자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돈이 쌓여있어도 부여된 가치가 없으면 종이에 불과합니다. 가치가 없는 물건을 사랑하고 애지중지할 때 그것이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낡은 펜에 가치를 부여하면 보물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도 사랑하면 가치가 생겨납니다. 사랑이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가치에 의해서 보물이 됩니다.

둘째, 지불된 가치에 의해서 보물이 됩니다. 오랜 시간 보존되었기 때문에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라는 가치가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존속되었다는 가치가 지불된 것입니다. 훌륭한 그림이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술가의 창의력과 헌신과 노력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희생이 지불되었느냐에 따라 더 귀한 보물이 됩니다.

셋째, 쓰인 가치에 의해서 보물이 됩니다. 얼마나 긴요하게 쓰임 받았느냐에 따라 보물이 됩니다. 아무리 값비싼 그릇이 있어도 쓰이지 않으면 보물이 아닙니다. 진짜 보물 같은 그릇은 쓰이는 그릇입니다. 자주 쓰임 받는 그릇이 진짜 보물입니다. 어느 공동체이든 없어서는 안 되는 보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없이는 공동체가 존속될 수 없고, 그 조직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바로 쓰이는 가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이 세 가지 이유가 모두 해당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보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땅 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해 그분의 백성, 그분의 소중한 기업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 수가 가장 적었다"(신 7:6~7).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아이큐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에 보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속해주심으로

둘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해주심으로 그들이 보물이 되었습니다.

"네가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한 만큼, 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 다른 사람을 내주고 네 목숨을 대신해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사 43:4).

장차 오실 구원자를 통해 대속하시고 구속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속한다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검찰에 잡혀 들어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구속은 당시 사회의 경제적 용어입니다. 영어로 'Redemption'입니다. 'Redeem'이라는 단어가 당시 문화적 배경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Redeem'는 다시 산다는 의미이고, 'Redeemer'은 구속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채무를 갚지 못해서 종이 되거나 노예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친족 가운데 누군가 구속자가 되어야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억압받고, 착취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탈출구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누군가 그 사람이 지은 문제나 죄 혹은 빚을 갚아주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합니다. 가알을 행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회경제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억압받고, 착취 받고, 얽매여 있을 때 그들을 구속하셨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기에 그들이 특별한 보물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출 19:4).

독수리의 날개에 얹어서 나르듯이 이뤄진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은 백성들을 보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이유는 그들이 진정한 보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쓰임 받는 가치에 따라

셋째, 쓰임 받는 가치에 따라 보물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미 보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 5절에 "장차 앞으로도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사용하심으로 보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5~6절).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속하신 이유는 쓰임 받는 보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에게 가는 것이고,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에게 모셔가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제사장이 될 때 특별한 보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을 어떻게 이룹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언약을 지킬 때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만큼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써 이스라엘이 받은 소명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보물인 까닭

하나님은 교회도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보물인 까닭도 세 가지 이유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엡 1:4~5).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택하신 가치로 인해서 우리는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들이 배역하고,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찾아오셔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엡 1:7).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으로 구속을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피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우리를 구속하신 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생명의 가치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물 같은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불러 주시고,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셋째, 교회는 열방을 위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음으로써 특별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11면에 계속〉

20170108-1131-_2012528 -90216 17. 1. 6. 10:25 Page 4

〈생명의 삶〉 창간 30주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고 있는 정창훈 선교사는 매월 〈생명의 삶〉이 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한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받아볼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이다. 정 선교사뿐만이 아니다. 매월 〈생명의 삶〉 출판을 기다리는 독자들이 한 둘이 아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고, 매일 만나야 하는 잡지이다. 매월 독자들을 찾아가는 〈생명의 삶〉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질까. 〈생명의 삶〉 제작과정을 취재했다. 편집부 7인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매월 〈생명의 삶〉이 나오기까지!

편집부 7인의 소리 없는 전쟁터를 가다



신문, 잡지, 만화, 단행본, 사보(私報),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 각종 매체들은 장르와 성격이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마감이 있다는 점이다. 편집하는 사람들에게 마감은 곧 전쟁이다. 시간과의 전쟁, 활자와의 전쟁, 모니터와의 전쟁, 체력과의 전쟁…. 총성이 오고가지는 않지만 어느 전쟁터보다 치열하다. 해 본 사람은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안다. 지난 4일, 서빙고동 두란노빌딩 7층에 위치한 〈생명의 삶〉 편집실을 찾았다. 한창 마감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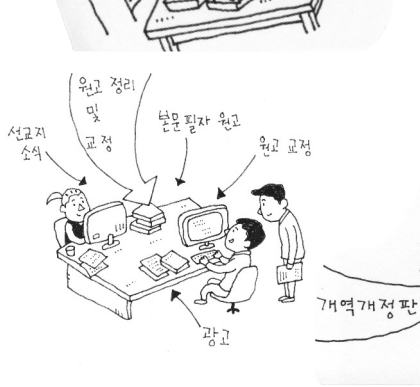
역시 마감날은 조용했다. 아니 적막감이 흘렀다. 소리 없는 외침 속에서 비장함이 느껴졌다. 교정지는 빨간 펜으로 물들어 있고, 컴퓨터 모니터와 성경책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편집자들의 눈빛이 독수리발톱처럼 매서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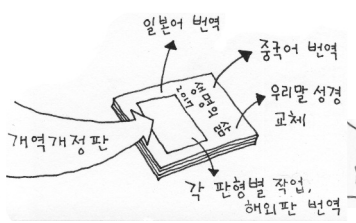
〈생명의 삶〉을 만드는 사람들은 모두 7명이다. 편집장 장덕은 목사, 편집부장 김정원, 편집자 서용주, 조혜나, 신재범, 디자이너 김유리, 이재연이 그 주인공들이다. 그들이 바로 매월 원고마감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하나님의 전사들이다. 지금은 5월호 〈생명의 삶〉 마감이 한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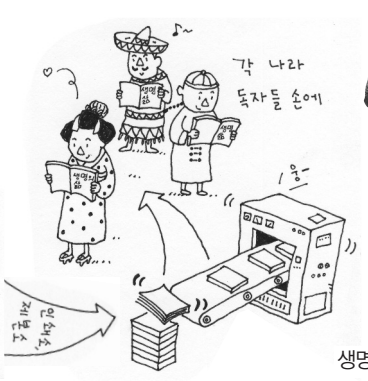
"작년 12월, 남들이 크리스마스를 묵상하고 있을 때 저희는 2017년 4월을 먼저 앞당겨 살며 고난주간과 부활절의 의미를 묵상했어요. 새해 첫 달이 시작된 지금은 5월호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것이 끝나면 곧바로 여름호를 준비해야 하고요."

〈생명의 삶〉 이렇게 만들어진다

〈생명의 삶〉으로 8년 동안 꾸준히 큐티하면 구약 1독, 신약 2독을 할 수 있다. 8년 기준으로 말씀이 돌아오는 셈이다. 〈생명의 삶〉 본문은 절기와 각 월의 특성에 맞춰 배치한다. 예를 들어 1월은 새로운 시작, 5월은 가정의 달에 맞는 본문을 구성한다. 고난주간, 부활절, 성탄절 등 교회의 중요한 절기도 고려해서 본문을 정한다. 〈생명의 삶〉 마감날은 매월 중순(15일)이다. 개역개정판을 14일까지 제작하고, 15일부터 월말까지 우리말성경과 개역한글판 텍스트 교정을 외주자에게 맡긴다. 이렇게 다른 판형들의 작업이 진행되는 2주 동안 〈생명의 삶〉 편집자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호 제작에 들어간다.









생명의 삶 편집팀.

각 편집자들에게 배정된 본문배열표에 따라 심도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본문에 맞는 해설이나 신앙서적을 찾는다. 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양질의 자료를 찾는 것이 그들의 임무다. 이 과정에서 쏟아내야 하는 에너지의 양이 엄청나지만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신학교 도서관에 가서 원하는 자료를 찾을 때까지 주석서, 강해설교집, 신앙서적을 수없이 뒤적이며 눈이 빠지게 읽고 또 읽는다. 원고 청탁도 이때 한다. 그렇게 다음호 〈생명의 삶〉 텍스트를 만들고 나면 2주 동안 디자인 작업과 교정교열 작업을 거쳐 개역개정판을 완성한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판형을 외주자에게 의뢰하는 동시에 또 다음호 〈생명의 삶〉 제작에 돌입한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 줄 필요가 있다. 막중한 사명감을 가진 편집자들의 노고를 말이다. 장덕은 편집장이 이런 말을 했다.

"미국의 작은 도시에 있는 교회에 가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한 남자 분이 〈생명의 삶〉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책을 허투루 만들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작은 나라에서 만든 큐티책이 열방으로 퍼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김정원 편집부장이 한마디 거들었다.

"편집부 7명이 여러 판형의 〈생명의 삶〉을 한 달 안에 모두 만들 수는 없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도 이름도 없이 섬겨 주시는 외주자들과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할 일입니다. 그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큐티로 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의 삶〉은 지난 30년 동안 쉼 없이 달려왔다. 그 귀한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한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기 고

한 손에는 전도지, 한 손에는 〈생명의 삶〉

1996년 1월, 두란노서원에 입사하던 날부터 〈생명의 삶〉과의 20년지기 인연이 시작되었다. 처음 10년은 독자로, 다음 10년은 〈생명의 삶〉을 만드는 사람으로 함께 했다. 두란노서원 직원이라면 누구나 그럴 것이다. 오래 근무할수록 가랑비에 옷이 젖듯 〈생명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365일 함께하기에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밖에 없다.

두란노서원은 매일 200여 명의 직원들이 큐티로 하루 업무를 시작한다. 다양한 생각, 다양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매일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말씀 하나로 다양성 속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 같은 마음과 같은 영성으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요, 축복이다. 〈생명의 삶〉을 만드는 편집자들의 어깨는 20만 명 독자(한글판 기준)의 수만큼이나 무겁다. 수많은 독자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편집부는 야근을 불사하고 원고를 만든다. "〈생명의 삶〉을 성경 다음 가는 신앙교과서로 여기고 있다"는 한 독자의 엄청난 이야기를 들을 때면 더욱 긴장하게 된다. 교재 퀄리티를 유지하고 혹시나 말씀을 묵상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고 또 검토한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진정성 있는 책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생명의 삶〉 편집부 직원들은 날마다 "내가 만들고 있는 텍스트가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묻는다. 진정성이 결여된 책은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흘러갈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만드는 텍스트를 내게 먼저 적용하고, 내가 먼저 변화를 경험할 때 〈생명의 삶〉은 만드는 사람과 독자 모두에게 참 생명을 전하는 책이 될 줄 믿는다.

언젠가 하용조 목사님이 큐티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한 손에는 전도지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큐티 〈생명의 삶〉을 들고 있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큐티책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전도지와 〈생명의 삶〉으로 구원의 길과 영혼의 양식을 열방과 자녀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

/ 장덕은 〈생명의 삶〉 편집장

20170108-1131-_2012528 -90216 17. 1. 6. 10:26 Page 5

2017 선교헌금 작정

1. 선교헌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2. 2000선교 본부장 김홍주 목사와 함께

개별적인 선교에서 함께하는 선교로!

온누리 선교, 이주민 선교·블레싱 도쿄·중국 선교에 집중



"올해도 온 힘을 다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섬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온누리교회는 매년 새해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에 선교헌금 작정행사를 한다. 선교하는 교회라는 온누리교회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열방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어떤 행사보다 선교헌금 작정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7 선교헌금 작정행사가 한창인 가운데 2000선교 본부장 김홍주 목사를 만나 온누리 선교의 방향과 올해 중점과제가 무엇인지 들어봤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먼저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2017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한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도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온누리교회의 새로운 선교 트렌드는 '융합선교'인 것 같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2000년부터 '융합선교'라는 방향을 세우고 선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융합선교는 선교 현장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선교'를 의미합니다. 온누리교회에는 수많은 인적자원은 물론이고 재정적인 자원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 자원들을 선교 현장의 필요에 맞게 지원하는 선교가 바로 융합선교입니다. 2016년은 융합선교의 기초를 다지는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선교현장을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에게 온누리교회의 새로운 선교방향과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개별적 사역에서 팀 단위 선교로 방향이 바뀌고, 계획적 선교와 협력선교를 실시한다는 소식을 알리고 협력을 구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자발적으로 팀을 만들고 팀 단위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플레이입니다. 성도님들도 재정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중보기도, 선교협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재능과 은사가 선교 현장의 필요에 맞춰 제공될 것입니다.

앞으로 난민사역에도 집중할 것입니다. 이미 시리아, 중동에 있는 난민들을 계획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TF(Task Force)팀을 구성했습니다. TF팀을 중심으로 요르단, 레바논, 그리스, 터키를 돌면서 중장기적으로 난민사역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과 중국 선교의 지경도 넓혀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수많은 연구와 조사를 해왔습니다. 올해는 연구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사역을 해나갈 것입니다. 융합선교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올해 온누리 선교의 3대 과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온누리 선교가 완수하고자 하는 3대 과제는 이주민 선교, 블레싱 도쿄, 중국 선교입니다. 첫 번째는 이주민 선교입니다. 특히 이주민 선교는 이재훈 담임목사님이 2000선교에 새롭게 제시한 선교 방향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이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주민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한국을 찾아오는 수많은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가 한발 앞서 다문화사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 안산M센터가 새롭게 건립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곳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복음 듣고 변화된 이주민들이 고국의 선교사로 파송 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M선교사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M선교사는 국내에 온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합니다. 올해 10명의 M선교사들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M선교사 숫자를 계속 늘려갈 예정입니다. 이제 한국 사람만 온누리교회 성도라는 개념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다문화, 더 많은 다인종으로 이루어진 온누리교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온누리 선교의 또 하나의 비전입니다. 각 캠퍼스에도 M센터를 만들 것입니다.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누리교회가 앞장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블레싱 도쿄입니다. 올해는 러브소나타 10주년입니다. 도쿄에서 러브소나타를 개최하면서 다시 한 번 일본 선교의 불씨를 점화할 것입니다. 올해 아웃리치도 일본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각 공동체와 결연된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곳으로 아웃리치를 가셔도 됩니다. 다만 상황과 마음이 허락한다면 일본 아웃리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브소나타 10주년을 계기로 일본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다시 한 번 뜨거워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 선교입니다. 이제 중국으로 직접 가서 선교하는 방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의 필요 또한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교회는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재정과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중국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목회자 재훈련과 선교사 훈련 방법 전수입니다. 한마디로 선교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중국 교회의 이러한 필요에 따라 온누리교회는 제주도에 중국 목회자와 선교사를 훈련하고, 파송하는 훈련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 훈련센터를 기점으로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개별적인 선교'에서 '함께하는 선교'로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온누리 선교는 이 세 가지 과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들 늘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열악한 환경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올해도 온 힘을 다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섬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계셔서 온누리교회가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선교헌금 작정 목표보다 넘치도록 후원해주셨습니다. 아웃리치에도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선교사님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꺼이 동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올해도 선교헌금 작정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0선교본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신 선교헌금을 가장 소중한 곳에 쓰겠습니다."

20170108-1131-_2012528 -90216 17. 1. 6. 10:26 Page 6

엔젤트리, 여기에 전달됐습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참사랑마을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사랑마을 서한철 목사의 단 하나의 소망

사회선교부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엔젤트리(Angel tree)’를 통하여 귀하디 귀한 선물이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엔젤트리는 이웃들에게 성탄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다. 온누리교회는 2015년부터 이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 재소자, 독거노인 등 총 3,900여 명이 성탄 선물을 받았다. 장애인복지시설 ‘참사랑마을(원장 서한철 목사)’에는 쌀과 생리대가 전달됐다. 지난 2일 그곳을 방문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참사랑마을 지체들이 김장을 하고있다.



참사랑마을 식구들.

참 맑다. 참사랑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든 생각이다. 장애가 있지만 크게 문제 될 것 같지 않았다. 그 환한 미소만 간직한다면 말이다. 장애인복지시설 참사랑마을에는 9명의 지체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서한철 목사와 가족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있다.

이곳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저마다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다. 편부모 밑에서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방치되거나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신체장애에다 정신적 불안까지 더해져 문제가 심각했었다. 진우(가명, 9세)도 그랬다. 진우(가명)는 자폐 2급 장애인이다. 엄마가 없고 할머니와 아빠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누구하나 진우를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 할머니는 연세가 너무 많았고, 아빠는 늘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다. 늘 혼자 방치되어 있었다. 그 불안한 환경이 정서적 불안을 만들었고 자해행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천정주 사모는 진우가 참사랑마을에 처음 왔을 때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진우가 벽과 바닥에 머리를 계속 박더라고요. 이마에서 피가 흘러도 그 행동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진우가 이곳에 온 날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수십 번씩 사랑한다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행동을 멈추더라고요.”

한숨 돌렸지만 아직도 불안증세가 남아있다. 올해 9살인데도 기저귀도 떼지 못했다.

혜란(가명) 자매는 아빠가 없다. 엄마는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 하루아침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져서 참사랑마을에 오게 됐다. 혜란 자매는 지적장애와 퇴행성 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다. 장애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성인인데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가장 큰 문제는 생리를 할 때다. 호르몬 이상으로 한 달 내내 생리를 하고, 주기도 불규칙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혜란이가 쓰는 생리대 양이 엄청나다. 그 많은 생리대를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생리대 값은 비싼데 재정은 늘 부족했다.

희망이(가명, 10세)와 소망이(가명, 7세)는 남매다. 부모의 방치로 이곳에 왔고, 수정(가명)이는 새엄마가 맡기고 떠났다. 유일하게 참사랑마을이 부모에게 차갑게 외면당한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주고 있다. 그 귀한 참사랑마을에 위기가 찾아왔다. 지난해 겨울이었다. 쌀이 떨어질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해졌다. 지적장애인 아동들이 먹는 양이 엄청나다. 절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아동보다 3~4배를 더 먹는다. 그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었는데 때마침 단비가 내렸다. 온누리교회 차세대 샤이닝키즈 예준이 부모가 쌀 포대를 들고 왔다. 예준이 부모가 참사랑마을의 상황을 엔젤트리에 소개한 것이다. 참사랑마을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발 벗고 나섰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쌀과 혜란 자매의 생리대를 선물해줬다.

“온누리교회는 꼭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같아요.”

거듭된 시련과 위기에도 포기할 수 없다

참사랑마을을 섬기고 있는 서한철 목사의 사연이 참 기구하다. 참사랑마을이 세워지기까지 참 많은 곡절이 있었다. 서한철 목사는 생후 8개월 때 오른손을 화롯불에 데었다. 화기를 빼기위해 양잿물을 부었는데 그 부작용으로 다섯 손가락이 사라졌다. 그렇게 3급 장애인이 되었다. 뭉툭하게 변해버린 손이 장애인들을 섬기는 원동력이었다.

처음부터 장애인을 섬긴 것은 아니다. 일반 목회를 했었다. 장애를 감추고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서 목사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성도들이 하나 둘 곁을 떠났다.

“마음이 정말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장애인연합회 회장에게서 총무를 맡아달라는 전화가 왔어요. 장애인연합회에서 만난 어떤 분이 저에게 가정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서 목사가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간 곳은 빗물이 줄줄 새는 반지하방이었다. 환경이 정말 열악했다. 가슴 아픈 사연은 또 있었다. 부모 둘 다 다리가 불편했고, 자녀는 뇌성마비 장애인이었다. 서 목사는 그 가정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뇌성마비 장애인 아이를 데려와 돌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9개월 만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마음이 아린 경험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심이 컸다.

“그때 장애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장애아동을 한 명, 두 명 데려다가 씻기고 밥을 먹였다. 안타까운 일은 그 이후에도 계속 됐다. 어찌된 영문인지 장애인들과 생활하고 있는 비닐하우스가 두 번이나 전소됐다.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때 그를 붙잡아 준 것은 말씀이었다.

“‘공중에 있는 새를 보라’는 말씀이 깊게 와 닿더라고요. 장애인들이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짓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모금활동을 시작했다. 하루 10시간씩 다리품을 팔았다. 안 다녀본 데가 없을 정도다. “목사가 왜 구걸을 하냐”며 무시당하고, 심한 모욕도 경험했다. 서 목사가 도와달라고 건넨 종이를 마구 구겨서 쓰레기통에 처박은 사람도 있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힘들게 살고 있는 장애인들을 생각하면 그 일을 하루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모금을 했다. 그렇게 약 1억 2천만 원을 모금하고,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 참사랑마을을 세웠다.

고난은 끝이 없었다. 중간업자를 잘못 만나 참사랑마을이 부실하게 지어졌다. 지금도 천장 곳곳에서 물이 새고 있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눈이 오면 천장이 가라앉는다. 이제 70세를 바라보는 서 목사에게는 단 하나의 소망만 남았다.

“장애인들이 온전한 집에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후원 계좌번호: 국민 270-21-0258-518 (예금주 서한철)

문의: 031-333-1267

온누리교회에 온 편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꿈과 희망을 싣고 새해의 여명이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일이 지났군요.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참사랑마을 거주민들이 차가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정성 어린 선물(쌀, 생리대)을 잘 받았습니다.

저는 인적 드문 산골에서 연약한 지체들과 살고 있습니다. 심신이 무척 피곤할 때가 있지만 함께 해주시는 온정의 손길들이 있어 얼마나 큰 위안을 받는지 모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합니다. 귀한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장애인 선교와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시금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참사랑마을 서한철 목사 올림

20170108-1131-_2012528 -90216 17. 1. 6. 10:26 Page 7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12월 26일 Mon 월요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4:12~17, 25:1~10)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산마루교회는 노숙인과 일반인 성도가 공존하는 교회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에는 밀짚모자를 쓰고 서울역에서 쓰레기를 치웁니다. 노숙자들이 변화되어서 서울역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선교이고, 긍휼사역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긍휼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노숙자들에게 의식주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운동이 필요합니다. 덴마크를 봅시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GDP가 최상이고, 행복지수도 높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대역사를 보면 유럽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였던 나라가 바로 덴마크입니다.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홀슈타인 곡창지대를 빼앗기고 국민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들이 지금처럼 변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룬투비 목사의 '국민개조운동' 때문입니다. 그룬투비의 국민개조운동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성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정말로 변화되려면 회개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 없이는 인간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이 "회개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을 전제로 외친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 회개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 말한다면 회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느낀다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기보다 사랑하십시오. 사랑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통해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돌이키면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12월 27일 Tue 화요일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아모스 5:21~27)

이재훈 목사

아모스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사자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해치려고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메뚜기 떼와 불로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환상 가운데 다림줄을 보여주시면서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지만 용서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일 수 있는 것은 정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마저 무너뜨리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림줄의 심판이 주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돌이키면 용서해주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사탄이 가기로 예정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 속에서 돌이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의는 강물처럼 에너지가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흐르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상처와 미움에서 나오는 정의가 있고 사랑에서 나오는 정의가 있습니다. 분노에서 나오는 정의는 흐르지 않습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정의만이 강물처럼 흐르면서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 흐르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심판, 경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벌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정의는 흐르지 못합니다. 배부른 사람이 법의 심판이 두려워 정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의 아픔을 기억하고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사랑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런 정의는 흘러갑니다. 사람을 살리고 풍성하게 합니다.

진정한 정의는 나누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제도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정의가 흘러야 합니다. 그 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흐르는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야 정의가 지켜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의의 물줄기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12월 28일 Wed 수요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1~2)

유해근 목사(나섬교회, 재한몽골학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실현된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시대의 약자들이었습니다. 병들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부자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시대에 가장 힘없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의 반열에 세움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고프고, 나그네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가 예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낮은 자들과 함께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에서 내 백성이 누구입니까. 병들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이며, 고난 받는 자입니다. 바로 낮은 자들입니다. 낮은 자들과 함께할 때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야 합니다. 이 땅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과 교회는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떠날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저는 길 위의 나그네 이주민들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길 위에서 고난 받고, 울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과 살아야했고 하나님 나라의 식구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역파송으로 자신의 민족을 섬길 수 있게 도왔습니다. 역파송 선교사의 교회를 지어주기 위해 몽골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지어준 사람들은 북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몽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탈북자들을 품고 통일을 준비하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올해부터 몽골에서 '탈북자들과 함께하는 평화캠프'를 준비할 것입니다. 제가 7명의 몽골아이들과 함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몽골아이들을 섬기고, 이주민들과 함께 했을 때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부자가 되었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큰 성을 쌓았다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자랑거리는 '얼마나 많은 작은 자들과 함께하고 있느냐' 입니다. 온누리교회는 늘 작은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2017년에도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170108-1131-_2012528 -90216 17. 1. 6. 10:26 Page 8



12월 29일 Thu 목요일

교만은 심판을 자초합니다

(오바댜 1:10~16)

이재훈 목사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는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본능적이고,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순간적인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에서의 DNA가 에돔 족속에게도 퍼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성이 국가로 이어진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머물러 있지 않고 확산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만들고 영향을 미칩니다.

10~14절에 에돔 족속이 심판받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 동생 야곱에 대한 잔인한 폭력 때문입니다(10절). 둘째, 동생 야곱의 재난을 조롱하고 기뻐하고 함께 이방인들의 약탈에 참여한 죄 때문입니다(11~13절).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조롱할 자격이 없습니다. 악인이 벌 받을 때도 조롱하고 기뻐하면 안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을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5~16절 말씀은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에돔 족속이 안전하다고 교만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자신을 속입니다. 자신이 처한 유혹이나 위협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또 개인적인 교만을 넘어서 나라 전체가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괜찮겠지'라는 긍정적 사고만으로는 역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교만은 회개를 통해서만 벗을 수 있습니다. 철저한 돌이킴이 있을 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십니다.

17~18절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역전됩니다. 하나님이 시온산을 다시 성산으로 만드시고, 그곳에 그의 백성들을 다시 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돔 족속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깊이 뿌리내린 국가적, 집단적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나라, 버려진 땅과 같은 우리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줄 알고 교만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조롱하고 참여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여겼던 국가적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12월 30일 Fri 금요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사야 59:1~3)

박종길 목사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고, 무관심해서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떠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같이 죄악 가운데 잃어버렸던 생명들을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 우리의 죄가 문제입니다.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는 암 덩어리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잡아먹고, 파괴시킵니다.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되기 때문에 방심하게 만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에 대해 자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롬 6:23). 죄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그마한 죄라도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회개하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물들었으니 나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아직까지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회개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요일 1:9).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기를 내일로 미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뉘우치는 것은 잘하는데 고치는 것을 못 합니다. 죄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길이 열리고, 돌이키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1월 2일 Mon 월요일

주는 의로우십니다

(예레미야 12:1~5)

이상준 목사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라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선한 세상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악인들이 판칠 수 있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악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청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입니다. 사람들과 달리다 지쳤는데 어떻게 말들과 경주를 하겠느냐, 평안한 땅에서 비틀거리며 넘어졌는데 강변의 수풀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책망하시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이 통런하기를 원하십니다. 선과 악의 대립구도는 오래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선의 승리로 끝나야 하는데 중도에 지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당신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이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힘들고 넘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습니다.

다섯째, 하나님도 세상의 악을 참고 계십니다. 온 우주에서 하나님만큼 죄와 악에 대해 예민한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진짜 떠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기에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이 잘못을 반복해도 은혜를 베풀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당장 심판하세요"라고 하자 하나님은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내 백성을 포기할 수 없다, 다시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하면 다 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말고 "나도 내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아픔이 없겠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가 아니라 형편없는 세상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살려내는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0108-1131-_2012528 -90216 17. 1. 6. 10:26 Page 9

1월 3일 Tue 화요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는냐

(요나 4:1~11)

이재훈 목사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분노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동방의 맹나니'라고 불렸습니다. 다른 민족들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러한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까지 임재하지는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니느웨는 사흘을 다녀야 모두 다닐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나에게 40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룻길을 다녔습니다. 간절하게 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말을 듣고 한 사람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온 도시가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민족, 어떤 사람일지라도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 요나를 교훈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네가 화내고 있는 것이 옳으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면 그것이 옳은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언제나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권선징악의 하나님으로 다가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언덕 위에 올라가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봤습니다. 햇빛이 비치니 하나님이 박넝쿨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벌레를 준비해서 박넝쿨을 다 먹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화를 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요나는 분노하면서 "옳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루 있다 없어지는 박넝쿨도 아꼈거늘 12만 명이나 되는 영혼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묻습니다. 요나는 이 세 번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침묵으로 끝납니다. 질문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행하는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길 바랍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도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월 4일 Wed 수요일

고슴도치 부부 살아나기

(에스더 1:9~12, 에베소서 5:33)

김성묵 장로

인간은 사랑하면서도 접근하는 방법을 몰라 서로를 찌르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이방인처럼 외롭게 살아가는 상황을 정서적 이혼상태라고 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의 왕이었고, 그의 아내 와스디는 당대 최고의 미인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던 아하수에로 왕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보이려고 와스디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와스디가 거절했고, 격노한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들의 조언대로 아내를 내치고 법으로 모든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존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부 갈등의 원인은 동일합니다.

첫째, 애착욕구의 문제입니다. 부부 애착욕구의 핵심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엡 5:33)라는 말씀입니다. 부부 애착욕구의 핵심은 바로 사랑과 존경입니다.

세계를 통치하는 한 남자가 자기 아내는 품지 못했고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인인 아내도 감정대로 반응하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시가 아니라 무식입니다. 단순무식한 남편과 복잡무식한 아내가 만나 아주 단순하고 유치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복잡하고 격렬하고 치사하고 악랄하게 싸우는 것이 바로 부부 싸움의 실체입니다. 사실은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서 서로를 찌르고 아파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감정과 호르몬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와 의지적 행동으로 세워집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사랑하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고, 존경하면 존경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돌이키면 고슴도치 부부도 살아납니다.

둘째,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부는 갈등이 점점 깊어집니다. 아내는 공감해 달라는데 남편은 해결책만 이야기합니다. 어설픈 해결책을 제시하지 마십시오. 해결책이 답이 아닙니다. 공감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소통입니다.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소통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길입니다. 거룩한 가정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길입니다.

1월 5일 Thu 목요일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

(미가서 6:6~8)

이재훈 목사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모든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심에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죄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삶을 살면 죄가 상쇄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지은 죄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선한 삶으로 지워진다면 세상에 공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는 스스로의 힘으로 씻을 수 없고 씻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심판하십니다.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혹자는 선하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심판을 하시냐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악한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기에 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나의 무엇을 드려서 내 죄를 용서 받을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께 무엇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방법과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한 대표적인 사건이 면죄부였습니다. 교황은 면죄부를 팔아 십자군 전쟁을 하고, 활동비를 마련했습니다. 면죄부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그 무엇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자체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심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돌이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신 길을 받아들이고, 믿고,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사랑과 겸손을 우리의 성품 속에서 빚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70108-1131-_2012528 -90216 17. 1. 6. 10:26 Page 10



지난 3일 온누리교회와 13개 협력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시무예배를 드렸다.

“먼저 돌이키고, 다른 사람 돌이키는”

온누리교회, 13개 협력기관 2017년 시무예배

온누리교회와 13개의 협력기관이 시무예배를 드리고 2017년을 힘차게 출발했다.

지난 3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온누리교회와 13개의 협력기관(선교재단, 복지재단, Acts29 비전빌리지, CGNTV, 두란노서원,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경배와찬양, KIBI, 에젤선교회, 두란노해외선교회, NGO 더멋진세상, 온누리M센터)이 한 자리에 모여 시무예배를 드렸다. 시무예배는 CGNTV 대표 이용경 장로의 대표기도, 각 기관별 소개 및 구호제창, 특순, 이재훈 담임목사 메시지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각 기관들은 2017년 온누리교회 표어인 ‘돌이키면 살아나리라’와 각 기관의 비전이 담긴 구호제창과 각종 공연을 선보였다. 특히 온누리복지재단과 CGNTV가 선보인 구호제창과 공연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온누리교회와 협력기관 동역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위하여 부름 받은 사람들”이라며 “우리가 먼저 돌이키고 다른 사람도 돌이키게 하는 제사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찬양사역자 밥 피츠 초청 찬양집회

1월 22일 오후 2시 인천 온누리교회

인천 온누리교회가 세계적인 찬양사역자 밥 피츠(Bob Fitts)를 초청한다. 1월 22일 오후 2시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찬양사역자 밥 피츠 초청 찬양집회가 열린다. 월드투어를 통해 전 세계 성도들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밥 피츠의 영성과 노하우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밥 피츠는 세계적인 찬양사역자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He will come and save you’, ‘Roman 16:19’ 등의 대표곡이 있다. 2002년에도 온누리교회에 방문해서 찬양집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2017 아버지학교 비전선포식

14일 오후 2시 양재 기쁨홀

아버지학교 2017 비전선포식이 개최된다. 1월 14일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막 오른다. 이날 아버지학교 비전선포식에는 전 세계 아버지학교 사역자, 아버지학교 수료자와 가족들이 참석한다.

아버지학교는 2017년 표어를 ‘한 마음 한 뜻으로 비전을 향하여!’로 정하고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땅 끝까지 가는 아버지운동의 비전을 이뤄낼 것을 결심했다. 그 시작이 바로 ‘2017년 아버지학교 비전선포식’이다. 아버지학교와 가정회복 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의 : 02-2182-9100

기부금 납입증명서 연말정산 서류 발급

온누리교회
즉시발급, 우편발송: www.onnuri.org
방문발급(화~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재정팀
양재 및 캠퍼스: 목회지원실
문의: 02-3215-3265

CGNTV
www.cgntv.net(1월 9일부터)
국세청: www.hometax.go.kr
(1월 중순 예정)
문의: 후원관리팀 02-796-2243

NGO 더멋진세상
www.abetterworld.or.kr
국세청: www.hometax.go.kr
(1월 중순 예정)
문의: 02-2271-2248

교회를 아름답게, 성도를 기쁘게

서빙고 러빙핸즈 봉사자 모집

‘교회를 아름답게 성도를 기쁘게’를 표방하며 봉사하고 있는 서빙고 러빙핸즈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 분야는 청소와 식당봉사이다. 청소봉사는 매주 주일 오전과 오후에 화장실, 복도, 계단, 교회 외곽 등을 청소한다. 식당봉사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잔반정리, 배식, 식기정리 등을 한다. 관심 있는 성도는 주일에 로비에 설치된 러빙핸즈 안내데스크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010-3529-4847

장기선교사훈련학교(OSOM) 훈련생 모집

1월 12일까지 참가신청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장기전문 선교사 훈련과정 ‘OSOM(Onnuri School of Missions)’ 27기를 모집한다. 훈련은 2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16주 동안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실시된다. 합숙훈련이다. 참가신청은 1월 12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visionvillage.org)에서 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면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선교사훈련학교(OSOM)는 선교적 안목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인적 선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타문화권 교회개척, 전략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문의: 031-331-8182

부천, 온누리전도학교 훈련생모집

1월 31일부터 3월 10일까지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온누리전도학교 훈련생을 모집한다. 1월 31일부터 3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전도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로비에 설치된 안내데스크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온누리전도학교에서는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5분 전도와 반대질문에 대한 대답, 여러 상황 대응방법 등을 가르쳐 준다.

문의: 010-5040-3368

제2회 ‘KNOCKERS’ 영상 공모전

CGNTV, 1월 22일까지 제출

CGNTV SNS 전용 채널 KNOCK(이하 노크)가 제2회 KNOCKERS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다음 세대와 비기독교인을 위한 복음적 메시지, 크리스천 문화를 주제로 만든 3분 내외의 영상을 이메일(pepelepu@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기간은 1월 22일까지다. 이번 공모전 지원자에게는 CGNTV 입사 지원 기회를 부여한다. 상금도 있다. 1등은 200만원, 2등은 50만원이다.

문의: 02-3275-9526
www.facebook.com/cgntv.knock

양재 새가족 만남의 잔치

날짜: 1월 15일(주일) 시간: 오후 3시 30분 / 장소: 양재 드림홀
대상자: 2016년10월30일~2017년1월 1일까지 등록한 성도

강남A
김정현
이미정
이창배

강남B
서지연
최중철
남동규
이현정
방완근
성주희
윤정의

강남C
김홍중
성원경
유이금
이택수
조은미

강남D
정혜은

과천의왕
김기수

성영민
이미영

분당A
손명수
임희정

분당B
고수정
김숙양
이현아

산본안산

엄주길
왕 나

서초A
김진준
오현철
이복희
주가은

서초B
송영호

서초C
김승식
서영옥
양귀남
유지은
이철우
장혜정
최영희
하양봉

서초D
박준규
오진석

송파
박진평
이명순
이승환
임유승
전순정

안양평촌
차은빛

양재
김민경
손용택

신미경
신미혜
우경숙
이민호
이연경
임우현
장미경
장우정
정재원
조은실
차수경
허혜경

푸른누리
김가연
김경은
윤득근
임충호
장석호
전희승

20170108-1131-_2012528 -90216 17. 1. 6. 10:26 Page 11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내 보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로 택하시고, 구속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보물처럼 쓰임 받아야 합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제사장 공동체로써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더 많이 쓰임 받을수록 귀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여된 가치에서 머문다면 교만해집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그 사랑을 줄 줄 모르는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지불된 가치에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교만하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보물은 보물인데 쓰임 받지 못하는 보물입니다. 진짜 특별한 보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헌신 안하면 보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 같은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특별한 보물로 쓰임 받지 못하는 보물입니다. 진짜 보물은 쓰임 받는 보물입니다. 쓰임 받는 보물이 되어야 그 은혜와 복이 흘러가서 진짜 보물이 됩니다.

쓰임 받는 특별한 보물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벧전 2:9).

앞부분은 출애굽기 19장 5~6절을 인용했고 뒷부분은 우리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바로 보물입니다. 우리를 보물로 삼아주신 까닭은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빛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임 받는 보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덕과 은혜를 선포하고, 선전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에 따라 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덕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덕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면 전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특별한 보물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만이 쓰임 받을 수 있고, 특별한 보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한 만큼 거룩해지고, 거룩한 만큼 쓰임 받는 특별한 보물이 됩니다.

증거 되고, 전해지고, 쓰임 받고

2017년을 시작하면서 온누리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누리교회는 전 세계 개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보물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거룩한 온누리교회 성도들 덕분에 특별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치로 인하여 보물이 되고,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로 인하여 보물처럼 여김을 받는데 만족하고, 많이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온누리교회 소명입니다. 한국 교회 최초 중국선교사였던 방지일 목사님의 좌우명은 '녹슨 인생이 되기보다는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겠다' 입니다. 온누리교회는 닳아 없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쓰임 받는 보물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보물은 금고에 가둬놓고, 전시관에 가둬놓고,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가치가 있을수록 가둬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보물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 되고, 전해지고, 쓰임 받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지금까지 온 열방에 제사장 공동체가 되어서 보물처럼 쓰임 받았습니다. 후세들에게도 보물처럼 쓰임 받는 공동체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만 헌신했다가 아니라 자손들도 그렇게 쓰임 받는 보물이 되도록 그 소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의 새해 첫 주일과 두 번째 주일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가치가 지불되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쓰임 받아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작정하고 드려지면 모든 부의 원천이시며 모든 힘의 원천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긴요한 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누리교회를 보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보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요긴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로 불러 주셨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제사장 공동체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908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사역을 이뤄갈 수 있는 보물처럼 쓰여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두란노 신간

"지금은 진리에 귀 기울일 때"



〈생각을 생각한다〉
이재훈 저 | 두란노 | 10,000원

현대인들은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쉽다. 문제는 무분별한 정보가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다. 그렇게 되면 일방적인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일이 미디어를 통해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살아가면서 듣는 모든 이야기들도 이러한 문제에 빠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생각한다〉의 저자 이재훈 목사는 바로 이 '생각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자기 생각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가치철학을 언급하면서 어떤 주장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생각을 교정할 수 있는 힘은 올바른 전통과 권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이성적 비판을 통해 추론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올바른 계시를 통해 주어진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생각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소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귀 기울일 때 일어난다. 관계의 회복도 자신이 들은 소문을 내려놓고 진리를 나눌 때 얻을 수 있다. 함께 모이면 소문이 아니라 진리를 먼저 나누어야 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소식이 진리에 근거한 사실인지 아니면 부정확한 소문인지 분별하고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 소문에 굶주린 마음을 진리에 굶주린 마음으로 바꾸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 진리를 포기하면 소문은 공동체를 파괴한다. 그러나 진리를 붙잡으면 소문은 꼬리를 내리기 마련이다. 진리를 진리되게 하고, 소문을 소문으로 그치게 하는 교회와 사회로 바꾸어 가야 한다."

또한 자신을 돌이켜 감춰진 내가 아닌 나 그대로의 나를 만나라고 권면한다.

"사람들은 실상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한다. 아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직장은 물론이요, 심지어 가정에서 가면을 사용하기도 한다. 무서운 것은 홀로 있을 때에도 가면을 벗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의 실상을 대면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자신이 실상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알고 보면 환상이었음을 깨닫지 못한다. 각자가 쓰고 살아온 가면을 벗어야 실상을 만난다. 환상을 벗고 실상을 만나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고난은 그중 중요한 통로이다. 고난을 통해 가면이 찢어져 그 틈으로 자신의 민낯을 볼 수 있다. 우리가 품고 살아온 이념의 환상이 얼마나 얄팍한 진리의 단편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이 책을 읽는 크리스천들은 신앙개혁의 출발점이 되는 '생각하는 법'을 점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생각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인간관계, 조직의 문제, 슬픔과 절망 같은 내면의 문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치열한 이슈들이 모두 담겨있다. 전도하기 어려웠던 전도 대상자들은 물론 사회 현상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는 크리스천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170108-1131-_2012528 -90216 17. 1. 6. 10:26 Page 12

구분	본부	본부장	담당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사역본부	사회선교 본부	이기훈	권득한 장경식	권영석 김관근 김상수 김영배 남정진 문영재 박명균 박봉래 박상송 방찬종 송석근 신동식 심길섭 유진아 이기훈 이동희 이상율 이수완 임광순 임정열 정운오 정진호 정재욱 정태경 허원희 한화수 황의서 황재명		
목회행정	재정국	이준호	장경식	이창헌	문향숙	김경옥, 최영미, 최석훈

서빙고 캠퍼스 공동체

구분	공동체			담당교역자	대표장로	총무(팀장)	실행위원
성인공동체	본부 운영위원회			박종길	이한열		김동언 김만순 김영환 남상길 문충실 민문기 박두원 박봉래 박성규 박성근 박성호 박종현 서병화 심길섭 안성영 유의준 이 철 이경찬 이관수 이광순 이규천 이기증 이재규 이정근 이종길 이태열 이태환 전영수 정명호 정문규 차준한 최성완 허필우 홍성호
	D 권역	양천	운영위원회	임용성	유의준	이동훈	강영재 박영태 박흥균 성창섭 유의준 이봉의 장경문 황병원 박일환 이동훈 김정원 박노운 박상록 신재영 양환기 이광건 최병선 김재언 이종한 정승욱 유명혜 전의경 박미림 박주경 이정주
			양육운영팀		박성규	김정원	김윤미 전정숙 김애란 최선영 조선녀 박노운 김석자 김기순 김연순 김석중 고경자 박남식 이애리

서빙고 캠퍼스 예배

본부사역팀	담당교역	담당장로	운영위원회	사역팀	팀장	총무	실행위원
본부 운영위원회	김재석	박상송	김재석 문영재 최성석 이상진 박상송 신영각 박종현 유재홍 김영수 정광렬 이정근 한왕석 양상식 한갑수 류기범 이석일 정영기 송영범				
미디어	문영재 정재륜	김영수 남상옥	문영재 정재륜 김영수 남상옥 류승호 김광순 양성수	방송/영상	류승호	양성수	정종모 조규만 조형상 이민구 이왕재 오민영 최순화 원윤아 김현숙 장덕자 김현희 손창일 김한나 김광식 황광태 김지수 박창선 김지은 현진철 이의용 이현지 김동영 손정연 김은정 정태영 유희문 김재권 양성희
				통역	김광순	배수영	신은주 유쥬용 유희진 배소연 김세은 김윤필 김여준 박경란 황지연안호군 김선경 김향선 배수영 안인숙 유석인 손유리 홍유란 전은영 이한숙 안현준 정다혜 허세아 김민정
찬양사역	이민욱	박성근	이민욱 박성근 김종건 하성기 김학모 박영태 박성복 이재철 신재영 정응화 오승환 이정근 정은미 이철호 하웅주 김효림 강민정 장현화 박은규 이숙현	주향한 성가사: 홍정표 피아노: 김지희	정응화	이범규	홍정표 강남영 고정희 구승연 권영미 김두이 김미옥 김숙자 김순희 김연주 김영경 김영숙 김유진 김윤선 김인옥 김정자 김현정 김혜란 김효정 김희진 류승희 박경희 박숙희 박영희 박정영 방현순 서경숙 손지은 신귀순 심민정 양금화 엄지용 오미선 이도화 이명희 이문희 이서실 이영자 이영향 이은신 이은실 이정숙 이주은 이지나 이해윤 임진희 정송자 조경희 조은미 차승희 최경미 최경숙 최정은 한상미 한수원 황석자 강혜진 권정혜 김순덕 김영옥 김은지 김정자 김정은 김지은 김지현 김화자 나성예 남영우 노현주 반관옥 백상령 서은규 심은주 유기연 윤경희 윤태은 이연실 이은심 이진희 이향미 이현옥 이혜경 이혜숙 임미경 임화라 정말희 조성란 조은숙 주선숙 지연주 하 나 하지영 한순례 고정희 고희병 권휘진 김선율 김용순 김일동 김정운 김태훈 김현우 김형준 류길남 목준균 박인철 박진현 박현호 방영수 양승우 원용연 유우근 윤상일 이건길 이범규 이승한 이우람 이진원 장진규 정무현 정운오 정응화 정진우 최석중 최원석 김경백 김경환 김승민 김영태 김정환 김진원 김치열 김태형 김형석 맹완호 민동권 박진호 유승우 윤일근 윤재구 이광열 이상욱 이준영 임광순 정규봉 정순걸 정의일 조한무 한대훈 김지희 고명신 김기숙 김신혜 김영선 우현리 육지영 윤태희 이인숙 정화성 최경희 최원미 김동섭 김동환 김양진 박영두 이한영 주종성 황영옥
				포에버 성가대	고광범	박성복	김계희 김성자 김수진 김옥진 김여옥 금영숙 성정자 이동례 이선자 이임수 이명숙 육금란 민절차 조용선 진순임 정계환 정광자 주설혜 차숙자 천혜숙 채복수 하경만 김정희 김장숙 김을덕 김의자 김선희 김의순 박성애 박춘심 박성은 석윤락 유은도 이옥선 이금례 이은자 배영자 조향련 주순자 주혜은 최종옥 홍봉표 홍기순 황의숙 강대용 김학모 박기열 박성복 박영태 신우권 오세재 장옥룡 정윤채 감창우 김원규 김영태 고광범 이기장 최원호 황의엽 최이선
예배양육	김재석	한왕석	김재석 문영재 한왕석 연재욱	예배학교	연재욱	김효정	정광렬 서달석 김항준 신 섭 현정호 천명재 조성덕 이승용 김명임 조은숙 박효은 강영임 조은주 최정란 이은숙 심미정 원현미 지연주 김선정 석선자 제삼순 이정현

사회선교본부 서빙고 캠퍼스

본부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운영위원회	사역팀	팀장	총무	실행위원
본부 운영위원회	이기훈 유진아	권득한 장경식	권득한 박상송 유진아 이기훈 장경식 (정진호)	본부	김춘택	강종도	김상춘 김행자 김혜전 박은영 송은영 안윤진 이승애 이영희 이은미 이학철 이홍재 임원교 최미영 최혜옥 한성자 황덕신 황유선
사회책임	황재명 이기훈	정진호 정운오	권득한 박상송 유진아 이기훈 정운오 정진호 황재명	일.하.세.	김성주	손진영	권경은 권태희 권혁춘 김기진 김동근 김명현 김숙령 김은기 김정숙 김정은 김종진 김춘택 박 공 박지용 신종아 안은영 양의천 용종찬 이분선 임향기 정은희 정진호 정훈재 제무성 함상석
				책임	윤호석	오종규	김대영 김희정 조기훈 전재홍 정혜선 최서영
사회봉사	신동식 송석근 황재명 한화수	남정진 심길섭 임정열 박상송	남정진 박상송 송석근 신동식 심길섭 임정열 한화수 황재명	나눔장터	서선교	전상미	김경은 김병기 김연아 김형숙 박주희 송옥희 오명희 유기중 이규연 이경숙 이정숙 이수자 이종천 윤선애 조성심 한미자 함태현
				농어촌선교	구자엽	박윤현 손창일	강복심 고은률 곽현주 금수옥 김대임 김부희 김영애 김원규 김은식 김정주 김정화 김태용 김현아 문장혜 박경신 박상호 박성의 손현석 신우린 신정애 양정열 염혜숙 오현숙 옥순란 왕춘식 우승구 이명열 이복순 이성미 이영근 이영순 이왕재 이종례 이지은 이희인 이희철 장명자 장석림 정정순 조용선 조인식 채홍장 최순덕
				이웃사랑	조영봉	김정호	김경하 김경화 김성연 김수민 김연상 김영미 김용순 김은희 김철수 김홍구 문소현 배문 유기중 유신애 이동희 이재호 이정희 이향우 정지현 정희태 진인자 최길자 최유경 최지영 홍순철
				사랑의 줄잇기	최호림	문명숙	박인숙 박봉숙 신정혜 이희주 심상달 정덕일 최옥이 최승열
사회화합	송석근 황재명 문영재 신동식 한화수	임광순 이수완 박봉래 이동희 권영석 정태경	권영석 문영재 박봉래 송석근 신동식 이동희 이수완 임광순 정태경 한화수 황재명	맘앤맘스	박진아	김수진	강신원 강정모 고성란 곽경헌 구명진 구현정 권동희 길유진 김 경 김경숙 김경순 김민영 김숙경 김연지 김윤경 김현숙 남경화 노정희 류정경 문혜숙 민병춘 박영진 박은경 박정수 박종희 손화자 송명희 신연우 신진용 우은애 윤영옥 윤정희 이경옥 이미애 이성애 이영옥 이옥찬 이윤경 이윤숙 이인경 이지원 이한성 이현숙 인경자 임경선 장경원 장은정 장혜라 전순영 정화진 조상은 지선정 차윤복 한명숙 홍덕희
				은빛날개	조기훈	왕춘식	김기산 김정은 성명제 신용자 유기중 윤인순 이해윤 이희도 하금찬 홍순철

서빙고 캠퍼스 차세대

사역팀		담당교역자	실무	담당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예수님의 꿈아이	유아 3부	김성욱	김성욱	남상옥	구연숙	고경환	정) 고경환 김내환 김유기 김진희 나혜욱 박철현 송화연 이주현 원용균 유지은 이주현 전주영 지은영 한연희 부) 고은찬 경민주 신미나 이나영 박세희

서빙고 캠퍼스 대학 청년

구분	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대학청년 사역	대학부	하늘 (서빙고 두란노홀)	배행삼 안사무엘	박순길	최채우	김은주	멘토	박성규 박은정 최방실 최정현 최혜경 한상규 한왕석
							MC	강 건 국중호 김강은 김난새 김지화 박혜원 윤승재 이나라 이하람 이한나 한성희

선교본부 서빙고캠퍼스

본부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운영위원회	사역팀	팀장	총무	실행위원
캠퍼스선교 운영위원회	김홍주 손정훈 김도균	임훈	이승배 김영환 남명현 최주관 하성기 허복만 홍범식 최현재 문현구 김병순 김장렬 김종호 박대호 박해한 서명수 임호열 임 훈 장광열 최석민 한갑수 홍성호				
캠퍼스선교	김홍주	문현구		캠퍼스선교기획팀			고양곤 김규영 박균상 윤석운 이규복 이승호 이효선 정용규 정지완 정진호 정태혁 조요섭 최진혁 최창호 한정우
Acts29 비전빌리지	황종연	윤현덕	안태환 임 훈 최상근 장동형 이병하	훈련팀	김주의	이선영	김지영, 김지혜, 남주언, 오범규, 엄재준, 이문희, 이학일, 정선미 기윤정, 김창성, 신동빈, 신영민, 이수정, 장화평, 정경열, 함선호
				열방팀	박영희	지종현	
				기념관	서병원	서흔주	

양재 캠퍼스 예배

본부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운영위원회	사역팀	팀장	총무	실행위원
예배 성례	오 민 윤경숙 김도균 김상수	홍해남 양상식 심창구	오 민 윤경숙 김도균 김상수 홍해남 양상식 심창구 김기선 이종건 김윤식 문영표	성찬	이종건	오훈택 김지태	구자향 김지현 김진욱 마소연 박인경 박복희 변영희 서혜진 석태월 양동희 양성희 유우선 윤애선 이미경 이상화 이세영 이윤옥 임은영 임인식 임종순 임지수 한명석 박수경
				성찬(도곡)	김윤식 문영표	신동옥	송세호 정연제 박완서 최상로 이충구 이승복 손태균 윤석일 이강일 최채만 강창순 이호영 조기상 조정희 박영원 이석경 장혜진 한동옥 심지영 이혜숙 문정희 신윤옥 최희숙 정정욱 허순창
예배 봉사	김승훈 김상수 이기진 정재욱	한갑수 이해달	김승훈 김상수 이기진 정재욱 한갑수 이해달 전구원 이호영	주차(도곡)	최종순 김창원	김영삼 황진기	서달원 황성용 차득용 박민서 이근재 이상준 윤원재 이백권 현민수 황기연 이강신 김성수 김항철 윤찬희 이백권 강주식 권오철 윤병석 손성찬 정형룡 장봉석

20170108-1131-_2012528 -90216 17. 1. 6. 10:26 Page 13

			김창수 최종순 김창원				
예배 진행	김재석 이상진 양성민 오 민 김태용 김승훈 김소리 윤길중 이상진 이동훈 김승훈 이정환 김승수 김윤식 이성민 정한효 윤현규 이우람 안용곤 신경훈 김영배 김도균 정재욱 이기진 한영철 김영창	류기범 송영범 이우곤 김철민 박해한 이석일 김인선 오성훈 이홍선 김형겸 김관식 양상식 심희돈 정태경 정대서 김병순 허형석 이석일 홍해남 이수완 김명세 김준홍 함정철 이헌규 나상웅 유정상 임광래 이해달 박흥선 권오습 박동현 이희주 김관근 박동현 김성종	김재석 이상진 양성민 오 민 김태용 김승훈 김소리 윤길중 이상진 이동훈 김승훈 이정환 김승수 김윤식 이성민 정한효 윤현규 이우람 안용곤 신경훈 김영배 김도균 정재욱 이기진 한영철 김영창 류기범 송영범 이우곤 김철민 박해한 이석일 김인선 오성훈 이홍선 김형겸 김관식 양상식 심희돈 정태경 정대서 김병순 허형석 이석일 홍해남 이수완 김명세 김준홍 함정철 이헌규 나상웅 유정상 임광래 이해달 박흥선 권오습 이희주 김관근 박동현 김성종 허 경 김경학 이종철 조용대 권순형 이학일 김상철 김종만 백승찬 정영환 송진구 배병태 이명랑 홍해남 김영관 김찬우 권영로 이두성 심성국 이삼형 이정민 주영창 한병익 나상웅 유정상 임광래 최연경 윤선민 장문석 노희정 서동화 이강석 이응구 이광윤 서문강건	도곡 주일 1부	주영창 한병익	양윤석 박영원 노경한	강남B : 이병찬 이동우 이홍구 박완서 박태성 윤일철 김문갑 송세호 소현숙 정도옥 김성신 박연신 김현정 여동옥 김두애 최경애 박차홍 윤정의 오창수 김소형 서수경 박영원 전복숙 강순복 권혁희 홍혜경 심효무 이호영 정홍기 김영우 강남D: 이정욱 배영안 안태준 엄광미 김수진 이숙경 윤상우 박대수 전지연 전갑주 임승자 윤의진 한오동 이승곤 오혜란 윤병수 신연선 최준영
				도곡 주일 2부	나상웅 유정상 임광래	이용구	강남C: 박동히 황호영 백종욱 조영선 김경진 김병엽 하태웅 장해룡 이형석 이장희 최승철 방성모 정경채 이민관 김도회 진명호 신수령 한지영 강경희 김현옥 박현숙 이인숙 임현진 정영교 조일신 한성희 김현희 송문자 신은진 고영신 장구환 임혜옥 심제헌 전휘경 강정모
				화요성령	노희정	김영삼 김용상	구인순 김두진 김용상 김윤진 김은경 김택수 박승진 박연옥 신맹식 유은석 이소라 이영순 이은정
				헌금계수	이광윤	박언용	조용대 정길 신동은 권영로 이두성 임광래 김양미

양육본부 양재캠퍼스

본부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운영위원회	사역팀		팀장	총무	실행위원
제자도양육	김상수 김도균 김영창	주간)박동현 저녁)백홍기 이정구	김상수 김도균 김영창 박동현 백홍기 이정구 이기선 오범규 김정민	JDS	저녁	오범규	양오순 황순규	김경남 김은숙 김진모 김정렬 김혜정 박남선 박성채 박재범 배혜진 안동석 안미진 안수옥 엄성현 원재희 유경학 유미숙 유병화 이강민 이경애 이경희 이명숙 이용철 이정화 이형환 장유정 장미혜 전영근 전영이 정금희 정순지 채문이
새가족사역	김태용 김영창	용내문 심재욱 김선호	김태용 김영창 용내문 심재욱 김선호 박창국 백승찬 이기현	도곡		이기현	심규혁	황인경 박혜준 장신자 우정현 김영선 유승관 조수영 하태승 김경순 임승범 손은희 도재현

여성사역본부 양재 캠퍼스

본부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운영위원회	사역팀	팀장	총무	실행위원
수요여성예배	유영순	이화영	윤치연 허영은 김영미 김정숙	맞춤전도	김홍숙	천영실	강순복 서장명 윤영민 윤희경 박혜경 김은영
양육				좋은 어머니 스쿨	한진옥	지선정	김은영 김명의 이신숙 천영실 강은주 윤애경 서장명 윤영민 강순복 김미희 문시원 박선향 신지원 황선경 윤선진 이승희 이일진 강리영 강정현 임진영 김정란 김태희 김경숙 조상은 정혜중 김성은 김금자 배소영 임수경 김태희 유수지 이미라 이재숙 김영희 정수진

사회선교 양재 캠퍼스

본부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운영위원회	사역팀	팀장	총무	실행위원
한누리(탈북민)사역	김상수	황의서	김상수 황의서 홍장기	하나공동체	홍장기	배성국	김명수 김보람 김은영 김정아 민경일 백유미 손이정 신호남 양진환 이경우 이성주 임봉자 임삼빈 장석인 장형식 전갑주 전순실 표영희 하유정 한정호

전도 양재 캠퍼스

본부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운영위원회	사역팀	팀장	총무	실행위원
열린예배	윤길중 김승훈 한영철	김용기	윤길중 김승훈 한영철 김용기 김성호	열린예배	김성호	전영근 안미진	강지민 곽호석 권신정 권신정 김도연 김도임 김미실 김민경 김수신 김애니 김유진 김윤정 김은지 김찬희 김형종 문예지 박민혜 박종호 배혜진 서동욱 손가애 손경일 송정하 송진호 안동석 안윤정 양미애 여윤경 오태연 유은혜 이가희 이동욱 이민선 이상준 이성연 이세연 이 준 이윤선 이자혜 이창훈 임채강 장익수 장철주 정성옥 정은지 정지상 조영은 조윤상 최용운 최지영 최지영 한다정 한정원 함희지 허만희 허영권 현동환 현한울 홍관우

양재 캠퍼스 대학 청년

구분	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대학 청년 사역	청년부	갈렙 (도곡대강당)	조바울 문대성	서병화	강창재	이영욱	멘토	강찬석 강창재 고정숙 김경신 김유진 김지현 나병선 박구병 박 현 서병화 신미정 신정은 양준홍 이규성 이순희 이영욱 이종식 이화실 이희세 장미경 정혜숙 최덕만 최종순
							MC	권상수 김나영 김슬기 김정연 김한나 김혜민 박선영 소경수 이지은 표진옥

부천 캠퍼스

구분	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팀장(총무)		실행위원
운영위원회			박형준 김요성/ 김성균 박형민 손태용 윤석우 임 훈 정영규 한창격 허복만				
목회 행정	목회지원		김요성	한창격	정요찬	전우정	강수지 배지철 손미혜
공 동 체	믿음	운영위원회	박사무엘	윤석우 손태용	양재광		김태형 배승호 이효정 정재윤 최창호 황근배
		양육운영팀			김태형		김필수 문순덕 박상용 이원탁 이효정 정남운 한정우
	소망	운영위원회	지대근	허복만 임 훈	양선규		송인선 유병서 이응준 이재춘
		양육운영팀			이우진		고은희 김동섭 김영복 김용재 김창은 박승선 방효주 송경훈 송인선 심은자 양선규 오세영 우석균 유병서 유병서 이성수 이성일 이응준 이재춘 이호경 정지성 정홍선 조성건 홍을수
	사랑	운영위원회	유수열	정영규	조석원		노영학 이경복 조석원
		양육운영팀			노영학		공순남 김성웅 신현우 원종열 정재훈
	희락	운영위원회	박형준	한창격 김성균	박효신		박명훈 이용호 최형수
		양육운영팀			표만선		김두겸 김종덕 박명훈 박효신 이순향 이영미 최경미
	화평	운영위원회	김요성	박형민	서행기		강병섭 나광욱 문정식 이동욱
		양육운영팀			강병섭		김영옥 김명숙 박숙자 박인옥 이선영 조경은 최경진
	권사회		권오향	허복만	강경희		강경희 강영주 구인숙 권오숙 김경미 김광자 김늠이 김명애 김숙자 김현미 나덕길 노선빈 도재옥 박명숙 박복선 박상희 박숙자 박인옥 변윤희 송민정 송숙경 송현자 신명숙 이규인 이명미 이명숙 이명순 이미경 이보배 이영휘 이인호 이재순 이희분 임숙민 정영희 정화숙 조경은 조선애 조숙호 조화영 주영란 차주인 차혜숙 최영기 최현환 허혜경 황영임
	장례사역		김요성	손태용	김형윤	두관철	김수일 도윤포 송인선 이승항
예 배 사 역	예배기획		박사무엘 정지환	한창격	이원탁	김양은	김성은 김주영 배한주
	예배인도팀	밴드	박사무엘		이원탁	배한주	김성은 김주영 박은진 배한주 오찬미 왕희준 왕희준 이건하 이대범 이수영 이요은 이재민 이재민 임소라 정소영 정준현 최영환 한상욱 황지은
		싱어	정지환			김양은	고은옥 김양은 김윤나 김태원 박세미 박수연 박은영 안민정 오유림 유승희 윤정진 이수진 이영애 이원탁 이유진 정선영 정창영 최원선 최지숙
	주일예배	1부 예배/믿음	박사무엘	윤석우 손태용	배승호	정재윤	김태형 박상용 양재광 이승항 이효정 정남운 최창호 한정우 황근배

20170108-1131-_2012528 -90216 17. 1. 6. 10:26 Page 14

		2부 예배/소망		허복만 임 훈	양선규	이재춘	고은희 김동섭 김영복 김용재 김창은 박승선 방효주 송경훈 송인선 심은자 오세영 우석균 유병서 유병서 이성수 이성일 이응준 이호경 정지성 정홍선 조성건 홍을수
		3부 예배/사랑		정영규	최양락	전재완	김기출 김현석 노영학 문창준 박순철 박홍연 손상휘 신현우 이경호 이명순 이신애 이정민 전송은 전양희 조석원 조숙호 차주인 홍순향 홍진호
		4부 예배/희락		한창격 김성균	박효신	국문석	강형규 권연정 김민자 김수일 박명훈 박정심 백승주 안종복 여경은 예미경 이미경 이삼아 이순향 이영숙 이용호 이재현 정정영 최종규 최형수 표만선
		6부 예배/화평		박형민	서행기	염동복	강병섭 나광욱 문정식 이동욱
		5부 예배	지대근	손태용	이경호	임은혜	강은경 김예진 박마리아 박미영 박진수 이현진 임동규 임하늬
	찬양사역팀	기획	박사무엘	한창격	이종만	명노훈	오희경 유병서 이용호 장석철 장진영 최영은
		주손길			이용호	장석철	강경화 강흥천 김늠이 김만기 김미경 김미숙 김복례 김선옥 김승곤 김영란 김찬미 김해숙 김희주 노경희 민미홍 박수현 박숙자 박옥현 박종찬 변은주 변재욱 사창기 석용기 설현옥 송미희 신명숙 오동교 오세영 윤효중 이경자 이광필 이득춘 이미경A 이미경B 이보룡 이영주 이용호 이종만 임경화 정정은 최대희 최영란
		주높임			박문서	석명기	강현종 고은희 김가영 김경신 김국겸 김대영 김문종 김성원 김종덕 김혜진 명노훈 박병석 안소라 양태영 양훈재 옥명자 유병서 이기욱 이상곤 이영미 이용찬 이은경 이은미 임응규 임현실 장진경 정지성 정형종 조수진 조승희 주민석 채보람 최경미 최병녀 최병욱 최영애 한려원 허진숙
		주은혜			김승곤	방효주	김기순 김선옥 김창은 김혜진 문석환 박선희 석명기 양훈재 임은희 장진경 최원선 허진숙
	주중예배	수요여성예배	권오향	정영규	조경은	도재옥	강덕선 고은희 김민화 김선희 김양은 김현미 김혜경 나금란 문난희 박경심 박명숙 박은진 배한주 변윤경 송윤원 신은주 오찬미 이명숙 이요은 이은정 이혜정 전완희 정경자 조명자 지행자 최경미 함명희 함소영 홍성신 홍수연
		수요목양예배	박사무엘		최형수	이영주	김성은 김순영 김주영 박수연 왕희준 이슬아 정준현 최성환 최지숙
		새벽예배		김성균	이영미	김대현	김대영 김대현 김주영 박명훈 송명규 안소라 이영미 채보람
	예배지원	성찬		손태용	박상희	김동섭 이영한	강경희 강형석 김늠이 김복심 박경륜 박명숙 박복선 박숙자 박인옥 송민정 송현자 신명숙 신순남 윤명희 이명숙 이미경 이선호 이영휘 이재순 전혜경 정영희 정화숙 조경은 조미애 조숙호 주경희 차주인 최현환 황태선
		세례			양재광	최경미	김종덕 문란희 변윤희
		주차	김요성		김대중	윤영상	신승국 안선일 양은상 이성희 이형섭 조백선
		러빙핸즈			정영희	임은미	김선자 김선중 박현주 이재순 이지혜 정미자 정소영 주영란 채은혜
		헌금계수		윤석우	최형수	김태형	박효신 우시정 이미진
		데코팀	권오향		한승희	장사랑	임천수 황인영
양육사역	큐티		유수열	허복만	권기현	염동기	강인훈 권혁성 김수진 김종덕 김진호 김창수 김혜택 민경명 박병석 박수연 박인옥 배인애 송춘옥 신명근 신순남 안민정 안애순 윤선혜 이기재 이수경 이원탁 이재순 이혁진 이희국 전기철 전재덕 정덕화 조경은 조성건 주영란 차경순 최경미 최경숙 최수진 최지숙
	일대일			정영규	이우진	김남철	고명희 공순남 김미정 김필수 김현숙 김형기 도재옥 박금순 유창열 윤정애 이성수 이순향 이영미 이재춘 이재현 임정희 조석원 조석철 조성건 최경미 최양락 최창호 표만선 허 량 홍을수
	순장학교,임직자스쿨				노영학	양선규	강병섭 김미자 김필수 김혜숙 박인옥 이호경 지행자 최창호
	창조과학선교팀			손태용	박명훈	김숙경	김정숙 김현미 이경호 차영덕 최경미 최종석
	새가족		권오향	허복만	김형윤	김동균	강왕종 노은경 신순남 윤민자 이영애 이재현 주향진 최 선 최경진 최덕귀
	JDS			임 훈	이정옥	권정애	강덕선 고은희 김미라 김양은 김필수 김혜숙 김효진 민규영 변윤경 서연희 양기순 양수현 오수정 이 화 이미경 이선호 이수진 이은정 이현정 이혜정 전완희 전혜경 조연희 조혜수 최순옥 최원선 홍성신
	BEE/ OBC		지대근	허복만	이성일	강병섭	가지현 김명신 김미자 김수미 김숙자 김진호 박승선 박인옥 양선규 이규인 이문형 이승전 이현숙 임숙민 장안녀 한정아
가정사역	가정사역팀		김정순	박형민	박명훈	김성웅	강형규 고재일 공선화 권연금 권연정 김대영 김동균 김동완 김미경 김민자 김민희 김성웅 김수일 김승언 김용태 김은희 김태형 김필수 김현민 나덕길 남보영 도성해 문학수 박명숙 박승산 박정기 백승주 변승아 복혜은 서 민 성은경 안수영 우석균 유소영 이근용 이미자 이삼아 이영미 이은정 이정익 이희진 인은순 임천수 정상인 정은주 정재만 정혜란 조건호 주향진 채보람 채일형 최경숙 최창호 최혜리 한승희 홍수진 황근배 황지원
	헬로맘				김수연	이정화	김수연 이정화
선교사역	선교본부		김요성	윤석우	한정우	최창호	김종덕 김태형 노영학 박문서 박효신 서행기 심 원 이경복 이상환 이우진 이정선
	의료선교				김진수	김난이	김선규 김성균 김현미 박현주 변윤석 손태용 이기용 이원구 전인숙 차영덕 최화용
	와이미션				배승호	김명동	고정희 공순남 김도훈 김영중 노영학 박외숙 박정아 박정윤 박태규 배승호 배지연 백현경 정경옥 정명숙 조원락 최광자 최혜영
사회선교	사회선교본부			박형민	나광욱	두관철	김은숙 김정숙 김진호 김태수 김현숙 박성운 박정숙 박진규 송춘옥 안산옥 윤정애 이수경 최광자 최인성
	사랑의 쌀독				구자득	오흥섭	구나윤 김선자 김은숙 김정숙 김현숙 박서운 박정숙 송춘옥 안산옥 윤정애 이수경 이은경 최광자
	사랑의 빨간밥차				도재옥	심은자	김미경 김순희 김영희 노은경 도재옥 문순덕 박상희 박영숙 박정윤 사정란 심은자 양재광 양태숙 예미경 윤정진 이매자 이미경 이수연 이인호 이종희 임영안 임은미 장지연 조미애 조승희 주경희 주향진 허서나
	한사랑(탈북민)		김혜경		정흥섭	홍을수	김주은 김현화 노수경 심은자 양기순 이관무 조현숙 차경순 최민경 한금숙 홍성신 홍의순
여성사역	여성사역본부		권오향	정영규	조경은	도재옥	고은희 김미정 김필수 나금란 문난희 문순덕 박경심 박현주 백승주 사정란 신은주 심은자 이명숙 이영미 이혜정 지행자 차경순 채옥희 함명희 함소영 홍수연
	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권오향 김혜경	정영규	조경은	도재옥	강덕선 고은희 김민화 김선희 김양은 김현미 나금란 문난희 박경심 박명숙 박은진 배한주 사정란 변윤경 송윤원 신은주 오찬미 이명숙 이요은 이은정 이혜정 전완희 정경자 조명자 지행자 최경미 함명희 함소영 홍성신 홍수연
		안내팀			신은주	함소영	김민화 변윤경 정경자 조명자 홍성신
		예배팀			나금란	이혜정	김선희 김양은 박은진 배한주 송윤원 오찬미 이요은 이혜정 전완희
		새가족양육팀			지행자	고은희	강덕선 김현미 문난희 이은정 조경은 홍수연
		예배중보기도			이명숙	사정란	강경희 김명애 도재옥 박명숙 박숙자 이유정 조경은 조미애 황영임
	마리아행전	마리아행전			문난희	박경심	권정애 박해영 심은자 양기순 윤수임 윤인숙 이도연 이영휘 이정옥 임영희 제갈승희 차경순 채옥희
	선교	무릎선교기도학교			함명희	백승주	김경숙 김관숙 김양은 김해숙 김희정 박영숙 박은진 박정희 박해영 변윤희 송춘옥 신은주 신혜영 심은자 양수현 윤정진 이미경 이영미 정선영 조명자 지행자 차경순 최현환 추은희 함소영 허서나 홍 샘 홍희숙
	양육	큐티나눔방			홍수연	이영미	계윤희 김나연 김해숙 박지영 백승주 변윤희 송윤원 예미경 이 화 이미경 이수진 이은정 이희분 임영안 임요은 전완희 정정화 조연희 최원선 홍성신
		온누리전도학교			이정옥	권정애	강덕선 고은희 김미라 김양은 김필수 김혜숙 김효진 민규영 변윤경 서연희 양기순 양수현 오수정 이 화 이미경 이선호 이수진 이은정 이현정 이혜정 전완희 전혜경 조연희 조혜수 최순옥 최원선 홍성신
		성경일독학교			차경순	김필수	김주은 박영숙 박현주 송윤원 예미경 윤민자 윤정진 이영미 이은선 임은미 임정희 장사랑 정선영 지행자 채미영 한금숙 함소영
	좋은이웃모빌팀	인천구치소			심은자	문순덕	강덕선 김숙경 김해숙 김혜숙 노주희 박상희 박해영 방순애 변윤희 송춘옥 신은주 양기순 이남수 이미경 이효덕 임영희 조승희 지행자 홍순애
		두루두루청소년사역			채옥희	주경희	김정희 박현주 사정란 송현자 이근애 이명숙 정지연 차경순
		카리스미용팀			김미정	박현주	고명희 김경숙 김광자 김성원 김혜숙 신은주 이은정 전인숙 정소영 정화숙 차경순 채은혜
차세대사역	차세대사역본부		김정순	김성균	고동일 김용석 박상명 안희진 윤기철 최영빈 홍세나 홍순영		
	목요어머니기도모임				김수연	강희경	노경원 문혜영 오미나 이혜정 임은미 장미화 정명희 조경미 채은미 최미혜 최양희 홍희숙
	예수님의 꿈아이	영아 1부	홍세나		송병민	박정화	정) 김은정 노미영 노혜정 박진영 심희진 이석봉 이지선 한희준 홍주화 부) 김민구 김은숙 김지혜 김효인 이민혜 임수연 정일환 한승완
		영아 2부			김재형	홍 샘	정) 권경희 권근홍 권혁성 김진화 박미숙 서기원 심주혜 오이나 이지예 이훈재 임인숙 장신애 전금옥 정애리 정진희 허은영 부) 김두일 김미숙 김병수 김연경 김해경 오태성 이창근 임지영
		유치 1부	박상명		정홍선	오유경	정) 김현민 송윤숙 엄기순 오선의 오율의 정미경 최덕귀 최숙자 홍경림 부) 구자득 김선영 윤수희 최현화
		유치 2부			여경은	정현경	정) 권연금 김명순 김충식 김현주 박지수 양성용 유은경 윤정선 이은선 이정민 부) 마정준 박권동 박연서 박정은 석윤영 안슬예 이선호 이은정 이혜미 최광식 최정규 하소연 현상우

20170108-1131-_2012528 -90216 17. 1. 6. 10:26 Page 15

		꿈아이 놀이터	홍세나		성정미	심주혜	정) 오이나 이하은 이해정 허은영 부) 김해경 윤선혜 정다희
		샤이닝 키즈	박상명		홍희숙	김지연	정) 곽선영 권연금 김승연 김연경 김파초 김현주 김현희 백은진 양수현 여경은 오이나 이미희 이용진 이지연 이태숙 이하은 이혜정 임다혜 임은미 장미화 장사랑 전완희 정상인 정영희 정홍선 조혜영 차정현 채은미 최양희 홍경림
	꿈이 자라는땅	유년 1부	윤기철		하상길	김민희	정) 김영학 김은정 김은희 양기순 오정희 이흥주 홍희숙 부) 이혜정
		유년 2부	김정순		박은진	권해란	정) 고지명 곽선영 김영중 김제령 김주아 노유정 문난희 박병민 박승산 배정훈 백명진 선종관 성은경 안다솜 오성민 이미경 이은정 이태숙 장미화 전완경 전은정 정재만 제선화 조승철 지혜경 함재희 부) 김해택 송은미 유혁진 조혜연 양동진
		유초등 3부	윤기철		유병창	박민하	정) 김민자 성정미 이승용 부) 서 현 허선화
		초등 1부	김용석		주애심	남상화	정) 강원준 고정희 김숙희 박정아 임은미 정다운 차경순 부) 김수아 김아영 김영유 정예은
		초등 2부			김관숙	조명희	정) 김난이 김대현 김미정 문성희 사공향 석예주 성우철 엄기화 유하영 윤수임 이미선 이수정 임동규 전재완 최정현 홍경옥 부) 강성진 유찬영
		어린이 영어예배	홍순영		한정아	정명진	정) 김보라 김완정 김지연 나승원 배강석 양윤석 이상곤 이슬비 이정기 임시형 정수호 조종대 부) 강희경 윤정심
		어린이 JDS	김용석		엄기화	서지현	정) 김찬미 이 신 이제현
		파워키즈	최영빈		사공향		정) 차정현 부) 서연희
		영어성경통독	홍순영		이규인	권순미	정) 정명진 한정아 부) 김명신 명순분 이규인 이정기 장석림 장안녀
	파워 웨이브	중등부	고동일		정경욱	이현리	정) 강미정 국해양 김수연 김혜영B 박민재 박외숙 우윤우 장명희 정명숙 조윤정 부) 문병권 이윤중
		고등부	최영빈		권수영		정) 김준제 심예나 이태영 전윤정 정수철 조은비 부) 고영은 김형기 한규
		선교하는바울학교	고동일		정명숙		정) 기민규 김수연
		하브루타	윤기철		김두겸	박영숙	김연자
		파워워십	최영빈		전은정		전은정
	사랑부		안희진		이상태	박재능	김도훈 김선자 김영집 김정은 김지완 김진호 김창은 김현숙 노공택 박태규 봉영순 선정화 유승진 윤성은 이 성 이경희 이선희 이재순 이현정 임천수 전귀옥 정미연 조혜민 진경숙 채은혜 표만선 허지훈
대청 사역	대청사역본부		지대근	손태용	이경호	문정식	강원준 강은경 김세원 김혜수 남가희 박마리아 이희준 조은유 조지현
	대청	대학부	전영진		문정식	박마리아	강연재 박우아 손지현 이과경 이수영 이희준 정환웅 조은유
		청년부	조상훈		권기현	김세원	강형석 김선영 남가희 양유나 유예림 이종하 정서연 조지현 허진화

대전 캠퍼스

구분	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공동체	성인	동누리	운영위원회	정웅규	홍의택	유봉국		천영무 김윤수 송규수 오병태 유병진 한건동 이윤영
			양육운영팀		홍의택	김윤수		송규수 한건동 이윤영
		중서	운영위원회	정현석	김승열	박성민		배길환 신상오 양현열 최이정 하상희
			양육운영팀		서성현	김복렬		권용명 김이훈 이종민 계영희 박미옥 김선희 이지연
		유성	운영위원회	박태영	김태경	원호연		박희윤 이창현 구재환 이상헌 허은덕 한기철
			양육운영팀		양충식	이창헌		김성민
	권사회			박태영	김승열	김종희	김원경	금종만 조완숙 김인숙 문영화 박정희 김정희 이희경 이윤영 이충순 김명석 유정화 이은형 장미숙A 오명숙 박삼실 박천실 이경순 장미숙B 이경숙 이진선 이임숙 임영순 계영희 김복형 김선희 박미옥 이지연
	장례			정웅규	서성현	한건동	유봉국	김원경 김명석 유정화 이임숙 장미숙A 김종희 오명숙 박삼실 박천실 이경순 장미숙B 이경숙 이진선 임영순 강인숙 이은형 손은실 민은기 이경순 권용명 김선희 김순영 금종만 조완숙 김인숙 문영화 박정희 김정희 이희경 이윤영 이충순 계영희 김복형 김선희B 박미옥 이지연
예배사역	예배기획			김관수	김승열	홍석구	김재용	김형준 윤해명 이경수 이민호
	주일예배	1부예배	상반기		김태경	이창헌	원호연	박희윤 윤해명 이상헌 최태인 한기철 허은덕
			하반기		홍의택	김윤수	유봉국	송규수 오병태 한건동 이윤영
		3부예배			서성현	김창남	박정순	김정은 박명숙 이상웅 조현애 이정선 이종숙 황지인 허미옥
		4부예배			홍의택	최규종	임호진	김복형 김호민 손광희 심민아 안치형 안형균 유정화 이동열 이민영 이은형 이정숙 조일현 최용재
	예배찬양	찬양대	1부	김관수	김태경	이경수	이우영	강정임 강지호 공미정 구재환 권은하 김경아 김운도 김이훈 김진영 남승엽 류애신 문희정 박미옥 박승용 배명옥 송규수 신부현 안용호 양현열 염수미 윤영희 원유철 이기창 이상우 이진영 이해숙 이희민 임영순 전경숙 정경일 정미란 정연봉 최성원 최숙희 최용백 최태인 허명행 현민원
			2부			윤해명	고웅대	김경만 김진국 김선환 김수연 김정희 김종희 김해경 김현진 김혜영 류웅선 박희윤 박희정 변월섭 서희숙 성하중 송호경 신용식 오명숙 유금은 유정화 이상헌 이슬기 이신영 이윤경 이세은 이재규 이주희 이지연 이진순 이철진⊠임선미 임은영 장미숙 장인주 전선영 전 후 정경라 정선하 정인선 채명자 최경희 최두리 한길정 한수정 황기순
예배지원	성찬			정웅규	홍의택	선태현	라상원	김승열 양충식 이건재 천영무 서성현 김태경 라상원 한기철 유병진 김성동 최이정 김이훈 박승영 배길환 최용재 이창헌 김복렬 정용규 최철민 이상헌 김광중 박희정 한건동 채종원 김석수 이동열 최태인 주상현 손광희 김경만 김성민 유충현 권용명 이재광 이철진 양현열 이종민 김종국 신상오 이상헌 최이정 유봉국 윤재병 박희윤 윤여준 이대식 송규수 이종민 주영준 오윤식 이병태
	세례				김승열	김종국	이금자	이종숙 고효숙
	헌금계수		1부		서성현	김광중	이승훈	이우복 민은기 문영화
			2부			김종국	남상욱	강종민 조혜형 성백숙
	주차팀		1부		홍의택	한건동	김종국	
			2부			배길환	윤영국	최용재 윤재병
	미디어사역			정현석	서성현	최이정	이은주	윤영권 안준철 이영주
	러빙핸즈				서성현	황순임	김미애	박천실 이경순
	데코레이션				김승열	이은하	이은주	김미애 김은주 송강숙 양은주 이윤정 이정희 조현애
양육사역	양육기획			최혁중	김승열	임지훈	백영미	박승영 윤재병 이종민 정경일 최이정 최태인 한기철
	새가족			정현석	양충식	이종민	양승경	강선영 고현주 김기언 김재국 나희미 범석훈 문영화 심미정 안형균 오병태 윤수진 이주은 정석순 진정근 최윤경 홍미남 황순임
	일대일				홍의택	라상원	김호민	권용명 김원경 김윤수 김이훈 곽정아 박상수 손광희 송호경 신미라 심미정 오윤식 유병진 유봉국 윤여준 윤해명 이재규 이윤영 정은경 전란희 이정숙 최태인 송영규 김명석 이경준 박지원
	큐티			최혁중	양충식	이창헌	이종민	한기철 최태인 김이훈 이윤영 김성민 정인선
	OBC				양충식	한기철	김경만	구재환 김종희 라상원 박상수 손은실 신미라 오청운 이경숙 이동열 이상헌 이임숙 이창헌 이충순 조일현 조정희 차미자 최태진
	JDS				김승열	최이정	박경숙	김광중 김명석 라상원 배길환 이은주A 이은주B 이재광 장미숙 조완숙 이임숙
	창조과학			최혁중	홍의택	오경숙	김이훈	김제헌 박승영 손광희 손종대 송기창 이경수 이재진 한기철
	순장학교			정웅규	서성현	장연미	안수진	범석훈
	임직자스쿨				홍의택	계영희	박명숙	정경일
차세대	차세대 기획			최혁중	홍의택	박지원	백영미	고현주 김경민 송강숙 송영규 송치오 이나비 이은하 황병순
Acts29	선교	해외	와이미션	정웅규	양충식	송영규	서희숙	이병태 김광식 이상분
외국어	영어예배			enoch	김태경	이순복	백운호	Michelle Jin Inga Hannah Rachel Christine Eunsil Bingky Yong - Jae Lee Sydney Grace Kim Angela Kim Sejin Holy Marsha
	중국어예배			정웅규	서성현	박희정	최철민	선태현 김선희 김수연 박경은 정영배 정진경 이희정 이영애 전택규 정금란 이알렉스 준준 주유 왕경 석아금 장가니 임 호 소성망 한량복 곽몽소 하야뢰 주청결 변은은 장미 진영상 이지호 유만 황혜 왕가미 왕 옥

20170108-1131-_2012528 -90216 17. 1. 6. 10:26 Page 16

남양주 캠퍼스

구분	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공동체	A	운영위원회	조병홍	박덕현	김기환	최재혁	김병태 김원한 김진구 임성택 황춘욱
		양육운영팀			김기환	황춘욱	김미숙B 김재경 석재연 이은지
	B	운영위원회	허원희	임현태	정종암	김동준	구정호 김찬옥 박봉주 이승우 이명현
		양육운영팀			정종암	이명현	김선화 유인숙 이미경 정은숙
		장례			구정호	김동준	권혁희 김은실 민영혜 백완숙 안희갑 이영순 임원희 정미숙 팽정애
예배본부	주일예배	1부예배섬김팀	김현실	권영석	지병선	박기련	김행록 박봉주 장정신 조면종 임성택 함용숙
		2부예배섬김팀	허원희	임현태	이정호	김동근	권호성 김미숙B 김수현 김원희 김 혁 박영숙 조순희 최원태 하종갑 한정원
		3부예배섬김팀	조병홍	홍종철	이진택	박은숙B	고정은 김수진 김진섭 박성자 박정희 이명현 황춘욱
	찬양사역	주 찬양 찬양사역팀	조병홍	임현태	박래석	김용배	강미아 강병문 강유석 권봉선 권수경 권중락 기재우 김경숙 김경준 김동준 김문권 김미숙 김선옥 김수진 김용봉 김정숙B 김종미 김찬옥 김철균 김혜영 박석홍 박 선 박은진 박정자 박현미 방경옥 백윤정 송정희 서명자 안명진 양성애 엄윤주 오세린 오이식 오현정 이건흠 이군자 이남헌 전금희 정병훈 정순풍 정은숙 정형숙 정재성 조배근 조영균 조용민 진은정 최황규 필감려 팽정애 한은미 함용숙
		주 영광 찬양사역팀	조병홍		오경석	유주현	최재영 안은경 양지연 이기란 정한상 최글로리아 최윤희 고경배 고용욱 구정호 권순희 김원경 김은실 김주리 김진경 김영희 김충혁 김현아 남영택 남윤민 민 경 박선이 박 원 박은숙 백완숙 백현산 안윤진 안희갑 양은신 여정옥 오예송 윤정숙 이경숙 이미란 이정자 이준우 임순이 유진영 전재현 정미숙 정현석 조선형 주동호 주은숙 주정순 천병식 최명숙 최정윤
		2부 예배	허원희	임현태	최영집	박선우	김동희 김진화 남현옥 박 숙 신지숙 이현숙 이효진
		3부 예배	조병홍	홍종철	박성자	신지연	강미아 고정은 김수진 김진섭 박 영 박정희 신지숙 이명현 주영아 최유강 황춘욱
차세대사역	유치부		이재원 이다솔	박덕현	홍미화	주영아	김상우 박선우 박정주 이미령 이은지 이재원 이지연 장혜진 정성호 정혜진 조유미 주영아 황진영 홍승현
	유년부		이재원 노태규		이군자	현승국	김성령 김의환 김재형 김홍수 민현숙 박현주 소희선 설경숙 신지숙 오재은 윤경원 유재희 이건흠 이내경 임현식 최명숙
	초등부		이재원 김승관		오이식	김성현	강소정 강은자 권민지 권지원 권현정 김기선 박정희 안세진 이수진 이한나 황윤정
	중등부		이재원		최성훈	황춘욱	강승호 고은영 김선화 김수현 김원식 김주현 김주희 김형구 신동호 이승우 이인복
	고등부		이재원 박신광		최황규	신현선	김덕현 오성주 유은진 정성환 조유진
	새가족사역		조병홍		최재혁	김영민	구윤화 김양희 김종민 김진섭 김태은 문현희 박성자 송춘섭 유정윤 유선진 윤석란 이명옥 정명숙 정영철
선교사역	사회선교		허원희	임현태	남상헌	김철균/최은영	김동희 김선옥 김중근 김원희 김운정 김형구 김행록 남현옥 박복녀 박석홍 손민숙 이용화 이미란 유진영 석재연 조양문
	해외선교네트워크		허원희		이효선	유성권	유재권 최영집
	북한선교		허원희		이정호	김종겸	권혁희 김미성 박대일 박영숙 오현정 이영주 이원진 이화영A 임순이 임원영 장정신
	온누리미션		허원희/윤정노	박덕현	임성택	김병태	김미숙 김미화 남종욱 석재연 임종옥 쵸레사친

강동캠퍼스

구분	사역팀				담당 교역자	담당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예배	주일예배	예배팀	2부	찬양팀	오은규 서수민	강의선			강수정 강영은 고명진 김연경 박준상 박진아
				안내팀	임항재	강의선	박명환	김현주	강미순 김경희 김리경 김명숙 김창석 김혜신 나삼주 나정란 박상희 성대성 송경자 신상식 신영섭 양명금 오령아 유재선 윤덕호 이규자 이금순 이덕범 이성국 이순화 이원식 이정훈 이희금 임유미 위명순 장수진 전경란 정선화 정진미 조연구 조철호 천형자 최상숙 최선순 최영미 최정욱 한승완 한재선 한혜숙 홍석진
			3부	홀리파이어	서수민	원종호	김 현	정지혁	고예나 구은지 김선영 김은경 김은정 서은혜 오규진 윤진영 이은호 이현정 정성민 조민구 조지은
		예배지원	성찬	1부	임항재	문현구	마준락	임창우	김순옥 김승희 김신원 김양희 김연희 김학기 김혜신 나상권 류장근 박명애 박세정 박승희 손동기 심린선 원종호 윤상철 이규복 이무웅 이미희 이영숙 이은희A 이은희B 이종일 임채남 최명자 최선호 최용희 하은영 한성자 허수영 허영남 홍주희
				3부	윤석원	원종호	신은희	김영건	김신원 김창석 손동기 손철호 윤상철 박명환 이경석 조연구 정혜수 정한식 신새아 류재은 장정애 황인희
			헌금수거	2부	임항재	강의선	조연구	정명덕	김창석 김현숙 김현주 나삼주 나정란 송덕래 오령아 이성국 이희금 조철호 천형자 홍석진
			미디어팀	1부	임항재	문현구	조중희		강민석 권미혁 노지영 이민아 이창우
	주중예배	새벽기도			석승호	원종호	마준락	장택상	김순애 김옥희 김용숙 김원석 김은경 신종철 오현민 유숙경 유혜령 윤인선 윤진영 이선화 이수나 이조이 이천숙 조은정 최명자
		수요저녁예배			석승호	강의선	유재선	최여정	강사무엘 강영은 공해룡 구영석 권오윤 김경선 김나영 류정숙 박정일 장택상 전경란 한재선
공동체	권사회				노치형	허영남	허수영	최현자	김순옥 김승희 김양희 김연희 김혜신 나정란 박명애 박승희 배경옥 심린선 윤아란 이금순 이덕범 이미희 이영숙 이은희A 이은희B 임채남 최명자 최선호 최용희 홍주희
	장례				노치형	허영남	윤상철	조철호	김순옥 김신원 김창석 김학기 류장근 손동기 이종일 장수진 한승완 한재선 홍석진
	강동A	권사회			임항재	강의선	이금순	최현자	나정란 배경옥 이덕범 조은미
	강동B	공동체			오은규	문현구	윤상철	손동기 이규복	김순옥 김신원 김학기 나상권 류장근 손동기 원종호 이무웅 이종일 허영남
		권사회			오은규	문현구	허수영	최선호	김순옥 김승희 김양희 김연희 김종은 김혜신 박명애 박세정 박승희 심린선 이미희 이영숙 이은희A 이은희B 이춘영 임채남 최명자 최선호 최용희 하은영 한성자 홍주희
		장 례			오은규	문현구	윤상철	심린선	김순옥 김승희 김신원 김양희 김연희 김종은 김학기 김혜신 나상권 류장근 박명애 박세정 박승희 손동기 원종호 이규복 이무웅 이미희 이영숙 이은희A 이은희B 이종일 임채남 최명자 최선호 최용희 하은영 한성자 허수영 허영남 홍주희
사역	양육	새가족			임항재	나상권	김신원	김성철	김원석 민덕기 박은하 양명금 오민영 최리리 최영미 한홍빈 허수영
		일대일			임항재	나상권	김학기	박성용	김수한 김현주 노연실 류승옥 마준락 문효정 손철호 신석희 오춘복 유은희 이규복 이미나 이성원 이영희 전미진 최여정 최영미 최형윤 허수영 홍준영 황미정 황순미 황평선
	전도	전도			오은규	문현구	이영희	유영석 김수한	권오윤 김기성 김대성 김리경 김창석 김현주 박준문 배종선 손동기 송미라 신상식 신종철 유성룡 윤주연 이규복 이선주 이수나 이종일 정미자 정영훈 조철호 천형자 최용희 홍석진
	차세대	총괄팀			석승호	허영남	곽상학	강민석	오준현 유은희 이경순 이민아 정영훈 차재형
		예꿈	영아부		석승호	허영남		노정아	정) 김은혜 김진경 박정례 이상아 이은일 진혜정 한은정
			유치부		석승호 이민아	허영남		염지영	정) 권도임 김건우 김선영 김소현 나영준 송지은 이혜연 정하원 최선영 최성우 최중호 황귀상 부) 문지연 주희진
		꿈땅	유년부		곽상학	허영남	정영훈	이화진	정) 강덕규 강진영 김영수 김은정 김정신 김해동 김현경 박성용 박언아 변수홍 송지은 윤덕호 윤창균 이성원 이정민 이혜영 임혜나 부) 김정은 안주영 양정미 이강희
			초등부		강민석		이경순		
		파워웨이브	중고등부		석승호	허영남	유은희	이정권	정) 강사무엘 곽 훈 구경희 김주한 김지우 박정일 박정철 박준서 송주연 양희건 윤정희 정성미 조혜미 최다혜 한재웅 황선영
		사랑부			오준현	허영남	차재형	이은정	곽형준 권혁만 김기성 김양희 김준희 김지영 노재철 신찬용 오미리 오한중 유성룡 유수미 이강원 이수연 이창민 조한나 주효경 최명선 최혜진 홍정은

양지캠퍼스

구분	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예배사역	주일예배	1부 예배	도육환	최상근	손용안	정경열	김종열 남경임 범미례 서인택 육동신 이재현 이혜숙 전말희 정명희 조성애
		2부 예배			박용배	신원용	강정자 공영호 김정은 김종열 박광재 범미례 서인택 신미옥 신익호 엄은주 윤해란 이혜숙 조혜경
	찬양기도	2부 워쉽콰이어	이강현	이남수	서준오	김미옥	강경외 강민규 강화숙 고인선 구교성 김종미 김종열 김진선 명길례 문은희 박은주 박정순 서정관 송승연 이동구 이명옥 이성재 이소희 이윤희 이정택 이혜숙 임경숙 장현익 조윤행 조익철 조련미 최정원 최진혁 한광국 홍상규
		열방 중보기도			이해옥	김복심	곽재은 김건세 김미숙 김옥식 김정은 명길례 박광재 범미례 백승호 서인택 윤지성 이재선 이해정 장은주 정계희 정지환 황진순
양육사역	공동체양육	QT사역	이강현	차준구	조혜경	조련미	박용배 신미옥 이우빈 이해정 최정원
		OBC/성경필사사역			조계진	김정은	김수민 박광재 박영진 서준오 안송지 최부열 최정원 허숙희 홍무자 황용오
전도 및 사회선교 사역	사회선교	긍휼사역	이강현	안태환	강호철	명길례	강정자 공영호 곽미라 김미숙 김숙희 범미례 서인택 이해옥 정지환 조윤행 최진혁
		이주민선교			임연혁	이해정	강해신 김미숙 김미옥 김복심 김형채 문은희 박평강 서준오 신영민 신영희 안효남 유선애 이수길 이우빈 이윤희 이해옥 이현경 장현익 장화평 정지환 조련미 조혜경 최정원 한광국
차세대 사역	꿈땅	유년	양승순	차준구	김은정	엄은주	안지현 이정아 조련미 최용락
	파워웨이브	중등부/고등부	서영철		이은영	장태원	김지완 박성민 박한애 양준모 이경섭 임규동 허정

20170108-1131-_2012528 -90216 17. 1. 6. 10:26 Page 17

QT로 여는 하나님 나라

30

1987 ~ 2017 생명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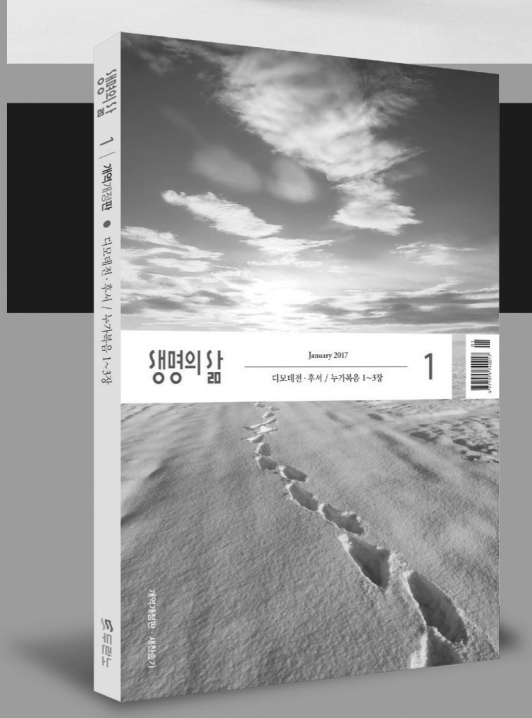
30년 너머 **영원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삶

1년 365일, 30년을 한결같이
천만 크리스천의 일용할 양식으로
은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또 다른 30년의 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보여 주는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2017년에도 생명의 삶을 맛보며,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QT에서 설교까지
생명의 삶 플러스

중·고등학생용 QT지
sena

초등학생용 QT지
예수님이 좋아요(고학년·저학년)

생명의 삶 앱

정기구독권

정기구독 문의 02)2078-3200 www.duranno.com/qt

20170108-1131-_2012528 -90216 17. 1. 6. 10:26 Page 18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 손정훈 목사
시간 :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 김국중 팀장(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하태일 팀장(010-3798-3148)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 예꿈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땅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땅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셔틀운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세라 선교사(010-4029-7601)

안산 온누리M센터 토요봉사자 모집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3~ 7시
모집: 기타, 탁구 강사 및 스태프
대상: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다문화가정
문의: 031-491-9650, 010-2724-4564
*기타와 탁구용품, 경품 등 후원 모집

꿈땅 샤이닝키즈 모집(말씀암송학교)
대상: 초등학교 1~6학년(2017년도 기준)과
부모님 중 한명
개강: 3월초~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내용: 1, 2학기 로마서 3,5,8장 암송
문의: 황연신(010-5442-8639)

주일 7부예배 싱어모집(여)
대상: 온누리 등록교인
시간: 매주 주일 오후 7:15~10:15
문의: 정은경 팀장(010-6354-1127)

주일 5부 십자가의 길 예배 싱어 모집
조건: 세례교인 이상
문의: 박근범 전도사(010-4939-2627)

두란노아버지학교 지원자 모집
일시: 2월 4일~3월 4일(매주 토 오후 5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한동홀)
접수: 02-2182-9100 / www.father.or.kr
아이스쿨에서 등록가능합니다

사랑의줄잇기 봉사자 모집
내용: 판매 및 상품 디스플레이
장소: 신동아쇼핑센터 1층
시간: 화~토 오후 1시~5시(하루 선택)
혜택: 매장 내 상품 구매시 10% 할인
문의: 이희주 권사(010-2209-6948)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대기신청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상단에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검색 후 대기자신청 작성
문의: 02-3215-3178~9

안산 온누리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모집
근무: 주5일(월~금), 오후 1시~오후 9시
자격: 사회복지사 2급, 교원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문의: 이경숙 원장(070-4439-1700)

양 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9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묵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묵상의집
*셔틀운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복정역 2번출구 9:20 출발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한 기도 모임 샬롬기도회
일시: 매주 월 19:30 양재 비전홀A
문의: 김두진 총무(010-6298-6318)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목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공사랑 축구선교팀 회원모집
비전: 축구를 통한 선교
문의: 오명석 총무 010-6470-7131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모집: 디자이너 1명, 예수님이좋아요
유치부 큐티지 편집자 1명
마감: 1월 14일까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고백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 천
032.322.9686

주일예배
1부오전7:00/2부오전9:00/3부오전11:30/4부오후
2:00/5부오후4:00(대청예배)/6부오후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본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 11:30 / 유치부-오전9:00, 11:30
유년부-오전9:00, 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부-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9:0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우) 매주 오전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비전홀

수 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 주일예배
대학부 14:00 경찬홀, 청년부 15:00 사랑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4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
랑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
년) 경찬홀 / 소년부 11:30(초5~6학년) 믿음홀 /
중등부 9:0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어린이&중고등영어) 11:30 비전홀

대 전
0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시 본당 / 4부 오후 4시 본당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5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0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0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
주중예배
온누리미션예배(인도, 네팔) 매주 토 오후 7:00
사이닝글로리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목양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시30분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09시00분 기쁨홀

평 택
0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온누리워십 수 오후 7:30 본당
How Mission 목 오후 7:30 비전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9:0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본당
주일국제예배
몽골어 예배 11:30 드림홀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쉘터

인 천
032.437.9686

주일예배
인천 글로벌캠퍼스(IGC) 운영재단 B1층
성인 1부 오전 9시 / 성인 2부 오전 11시 30분 /
성인 3부 오후 2시
차세대 (영아부/유치부/유년부/초등부)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영어예배 오후 2시
프리스페이스 6층
중등부 오전 11시/고등부 오전 9시/대학청년 오후 2시
프리스페이스 3층
사랑부 오전 11시 / 몽골어예배 오후 1시
주중예배 – 프리스페이스 6층
새벽기도회(월-토) 5:2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부흥예배 매주 수 오후 7:40

강 동
0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본당
프라미스U 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 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본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본당

양 지
0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영아)/ 11:00 / 3층 주선애홀
(영상중계)
예수님의 꿈아이(유아,유치)/ 11:00/지하1층
무어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0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자라는땅(초등) / 11:00 / 지하1층 킬보른홀
파워웨이브 / 11:0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수요선교예배 / 19:20 / 1층 시안홀

20170108-1131-_2012528 -90216 17. 1. 6. 10:26 Page 19

Onnuri 온누리교회

http://onnuri.or.kr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박형준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박태영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굿모닝빌딩 3~6층
- **남양주**
  안광국 목사 (031) 565-9686~8 (대표)
  471-85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김종민 목사 (031) 651-9680(대표)
  17906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26 2~3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98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13
- **강동**
  노치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 **태안온누리**
  송영동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송영동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추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권혁빈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금경연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이훈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 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한규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김철진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7 Tarndale Grove, Albany, Auckland, New Zealand

■일본

- **홍경**
  문봉주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542-0083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Nagano-ken Ueda-shi Oaza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서현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김철희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하토리 타케시 전도사 81-75-748-9303
  Saiin Pram Bld 6F, Sanjocho 14, Saiin Wookyoku, kyoto japan

■중동

-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2-665-7754
  opposit embassy of Viet Nam, 23rd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김영철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동**
  김대진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53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526路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shan zhongdianzhan)
- **상해**
  박만규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ànghǎishì Mínhángqū Cáobǎolù 1243hào yǒngwèishāngwùdàshà 3lóu 388shì
- **장춘**
  박시형 목사 86-131-7900-0752
  中国 吉林省 长春市 南关区 永长路 213号 onnuri.
  zhongguo jilinsheng changchunshi nanguanqu yongchanglu 213hao onnuri.
- **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박형준 신기섭
박태영 안광국 김종민 서경남
노치형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일영 강일하 권오향
권용갑 김경훈 김관수 김도균
김도윤 김상수 김성욱 김소리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윤식 김재석
김정숙 김정순 김정희 김종아
김찬호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렴문홍 마이크리
문영재 박대원 박성은A 박성은B
박서부엘 박정천 박세웅 박승훈
박윤헌 박철웅 석승호 손신국
손정훈 송영동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차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우윤상 원유경
유수열 유영순 윤경숙 윤길중
윤석원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탁 이동훈 이민욱 이상진
이서진 이성민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용성 임항재
장서부엘 전신익 전재표 전홍천
정상훈 정성훈 정웅규 정재류
정재욱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지대근 차명권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채기석 한화수 홍기완 허원희
황재명 황종연 Philip Arndt

◈전도사(전임)
길혜영 김용민 김재승 김종호
김진아 문장원 박승훈 배행삼
변대섭 송석근 유승현 윤현규
이강현 이우람 이종현 이준인
임경헌 정한효 한영철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이기복

◈협력목사
김도일 이기복

◈부목사(파트)
강은혜 곽상학 김기범 김지애
김종영 김창성 데렉모라레즈 벤저민솔렐스
마주마누통 배랑라셀리 백영미 손 숙
상루아비눕 안희진 유세근케이 유승덕
윤용국 임선아 최봉오 차제이미
Enoch Kwaku Hanokh

◈전도사(파트)
강민석 강성효 강지영 강희성
고동일 고인호 기호진 김기락
김기태 김덕기 김민석 김민영
김성웅 김세현 김세환 김승관
김영신 김요한 김용석 김은영
김은하 김은혜 김찬숙 김태환
김형중 김혜경 김희연 나지혜
노태규 문대성 민경윤 박광규
박근명 박근범 박상명 박신광
박영원 박은미 박은빛 박은자
박이호 박종익 박지예 박지원
박진혜 방세미 배순양 백영미
서수민 서영희 서종옥 신대균
송지은 신경훈 신대균 신혜민
신유수 신중건 신하선 안혜민
안사무엘 안용곤 안희정베냐민 양은주
양진범 오스라 오준현 유 경
유진아 윤기철 윤상복 윤형빈
윤정노 윤준석 윤치연 윤형립
이경선 이다솔 이덕주 이루주
이미령 이선영 이성광 이승윤
이양권 이완희 이용기 이원준
이은경A 이은미 이은희 이재석
이정도 이종민 이지원 이진이
이창우 이춘호 이풍주 이현대
이현석 이혜지 임요한 임지성
임지훈 임호진 장동원 장유미
장윤진 장재원 장춘혜 전가영
정만희 정에스더 정영광 정영희
정지환 정진아 조묘구 조상훈
조성광 조성환 최규종 최대흥
최성규 최성필 최영빈 최정현
최현웅 캐머런 요시카 하청훈
한성훈 허륜호 허영은 한대우
홍세나 홍세녹 홍순영 현신원
Lkhagvasuren Gan-Otgon

◈사역장로
강인지 고광필 구재영 권도원
권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광선
김남열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순 김수광 김수웅
김수역 김영길 김원경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용성 김형석
김이곤 김인화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주현 김진국
김철수 김학모 김현철 노재한
류지영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윤국 박영태 박찬빈 배종수
백승웅 백호현 서진봉 서창희
서찬교 성창섭 송만석 송일섭
송유신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우권 안국영 양재수 엄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완영
유재천 윤성열 윤영오 윤지준
이강범 이건재 이국주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병현 이옥연
이영길 이영세 이영철 이재준
이용경 이용하 이용대 이재철
이종순 이창남 임광택 장양희
정강무 정돈영 정보원 정순풍
정영열 정윤채 정용화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항진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최선수 최 명 최창규 최종길
최희영 피터웰디 하영철 하용기
한종대 한형식 함선호 홍기명
황용오 황재규

◈시무장로
강기석 강부순 강신익 강영재
강영중 강의선 강찬석 강철호
고 건 고다이라 고영주 곽진성
권득한 권영석 권오습 권오혁
권용성 권용한 김 완 김 웅
김 원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기영 김기호 김남식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종 김명현 김명훈 김민호
김병순 김병옥 김상섭 김상인
김상집 김선호 김성균 김성묵
김성종 김성진 김승열 김연상
김영수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
김용기 김용호 김의득 김인선
김장열 김재욱 김재일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창욱 김태일 김철주
김태경 김하중 김해기 김형겸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상권 나영욱 남명현 남상길
남상옥 남정진 노기홍 노흥규
류기범 명영찬 문성기 문영기
문창극 문창호 문종실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규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명률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상규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수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한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종현
박지수 박태성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흥균 백남인 백홍기
배 문 배기영 서명수 서성렬
상병선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용 손한기 송동섭 송영범
송영태 송종환 신무환 신민호
신영각 신학철 신한승 신현길
신현종 심길섭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심희돈 안동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상식 양유식 양주현 양춘경
양충식 오상록 오상훈 용내문
우승구 원종호 유 형 유병진
유병훈 유윤하 윤기홍 유재홍
육동건 윤기홍 윤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현덕 윤형주 이 철
이경찬 이경훈 이관수 이광순
이광형 이규천 이기증 이길수
이남수 이남식 이동규 이동희
이백용 이봉의 이상기 이상도
이상율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영근 이영복 이우곤 이은일
이용인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호 이정구 이정근 이종우
이태열 이태환 이한열 이해달
이헌규 이현조 이홍선 이화영
이희주 임 훈 임광순 임병수
임정열 이종길 임현태 임호열
임희창 장 광 장경문 장경식
장광열 장규환 장선철 장형준
전구영 전영수 전장하 정광열
정대서 정명호 정문규 정명균
정상기 정수업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운섭 정운오
정진하 정진호 정태경 정파종
정학영 정희원 조대식 조대희
조성현 조성환 조정구 조희동
주재량 차준구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민철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주관 최진성
최창수 최한우 최현재 편무옥
하성기 한갑수 한규종 한덕종
한백진 한양희 한왕석 한창격
한충희 함공식 함일성 함정철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필우
허형석 홍덕표 홍범식 홍성호
홍의택 홍정표 홍종철 홍해남
황병원 황영옥 황윤일 황의서

◈명예장로
마흥규 문태준 박동순 양원명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임대지
장옥룡 장응복 정광택 정병주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권준길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리처드백스
유재건 이경희 임응규 전태경
정지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세일 김정겸
김정환 김지혜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서동희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오희경 유선애 윤은희
이미선 이민호 이신영 이수정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미라
조익현 조정훈 전병곤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식
최지선 최재영 최훈희 홍용식
홍정표

◈반주자
김기아 김병성 김선경 김성규
김수현 김순인 김연아 김은경
김은섭 김은실 김은영 김인영
김주나 김지영 김지희 금민희
남궁진 노성희 박선희 박 숙
박영숙 박진용 방 휘 석지혜
이혜진 안은경 안은영 양지연
양현선 우경진 유재경 유지영
윤정희 윤현진 이강석 이나래
이예진 정경미 정다혜 조영혜
조한나 최은미 최희정 한은미
황보승 배원신 강영은 황대준
허윤선

해외 온누리교회

◈OMA담임목사
김형철 박재영 이정엽 이중재

◈담당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혁빈 금경연
김대진 김시연 김영철 김철진
김철희 김태완 박재영 니시야마신이치
마크최 문봉주 박만규 박시형
심상현 서재범 서 현 유현복
이성권 이영선 이한규 이 훈
정장철 최영민 히카미타 마키

◈부목사
강일하 곽성환 권희경 금동섭
김미정 김인숙 김시연 김성종
김재형 김태환 노경호 문성일
박근택 박신웅 박수환 박주영
박택근 방지남 백인호 서성광
여필종 유동우 유정훈 이경호
이성영 이세영 이일표 이재웅
이지훈 이종실 전상현 전현규
전홍렬 정동윤 정용환 정호석
조수정 조의환 진영국 최영진
최정무 허 민 홍동욱 홍성훈
홍세반 JamesPark joseph Chu Joe Lee
Lee Yi Sam An

◈전도사
강성근 강찬호 강창환 개자이에보
김산성 김성민 김성진 김성현
김인혜 김우신 김정옥 김지현
김진완 레이첼백 김현경 구혜선 노경호
마커스 문하나 민성민
박우람 박유리 박종구 박지혜
박향진 박현얼 박현욱 배윤희
백도훈 백일승 샘 리 서민표
서재욱 설산정 손미경 손주은
송준헌 신기원 안지현 양탈샘
연공주 윤경선 이복을 이상수
이수연 이은희 이재경 이지나
이현우 윤성민 장세윤 장혜홍
지자영 전희동 정선진 정은숙
정인교 정승철 조 단 최성배
최은정 최정수 최진숙 코베어지 메구
하보라 하도타 타케시 핸슨오 홍가람
Christine Shin David Kim JeanaLee Jeff Yoo
Jonathan Kim Tommie Nyobu

◈장로
권덕수 김경덕 김수호 김재동
백 학 손진성 신중수 이덕한
이상덕 이만영 이문호 장우진
정길안 조혁형 조성민 허규회
홍규석

◈명예장로
김용석

◈협동장로
강광일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연수 정두호 정석환 최승호
윤한돈 이재원 임현식 최태영
김종수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용재 남명호
노용진 도승희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이지은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우아경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장제홍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최승준
최정혜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결혼

1월 14일 토요일 오후 14:00 서빙고 본당
이무웅, 김혜신(온누리교회 장로, 권사)의 아들
이범석(온누리교회)
라홍균, 김연심(보광중앙교회 집사)의 딸
라희(잠실동교회)

1월 14일 토요일 오전 11:00 양재 사랑홀
임채남, 정순자(온누리교회 안수집사)의 아들
임준섭(토론토 한인벧엘성결교회)
김기돈, 이명숙의 딸 김란희(토론토 한인벧엘성결교회)

1월 14일 토요일 오후 14:00 양재 사랑홀
김화수, 김은영(온누리교회 장로, 권사)의 아들
김상일(온누리교회)
백종수, 류정열의 딸 백주연(온누리교회)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문창극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이소정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3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시청소년쉼터하나로 학습 자원봉사자 및 후원품 모집
검정고시(수학,과학,윤리,국사) 및 악기(통기타) 후원
문의: 임재금 팀장(031-399-7997)

온누리요양센터 입소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문의: 이주현 과장(070-4489-6889)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기계목욕 및 안내 자원봉사자 모집
시간: 기계목욕(화요일 10:00~12:00), 안내(시간협의)
문의: 길다솜 사회복지사(3407-2747)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베이비부머&시니어 대상 '행복한 요리학교'
대상: 서울시 거주 만 50세 이상 남녀 어르신
일정: 1분기(1~4월), 2분기(5~8월), 3분기(9~12월)
남성A반(화, 10시) / 남성B반(수, 10시)
여성A반(화, 13시) / 여성B반(수, 13시)
안내: 분기별 100,000원(총 12회기 진행)
문의: 허정훈 사회복지사(02-794-6100)

청파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봉사자 요청
내용: 식자재 다듬기, 배식, 설거지
시간: 매주 화, 수, 목 (09:30~14:30(식사시간 포함)
문의: 이소미 사회복지사(070-4340-2599)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 이영환 팀장(02-985-3609)

재 정

십일조 계좌: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외선교계좌: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의땅 헌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8 (모든 상담 사전예약 필수)
(화~금: 오전10:00~오후5:00, 토~일: 오전10:30~오후3:00)
면접상담 신앙,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상담, 미술치료
전화상담 위기시에만 제공
심리검사 MMPI-2, MBTI, 종합심리검사, 에니어그램, U&I 학습, 진로탐색검사
특수상담 세무상담: 첫째 주일 오전 10:30~12:00
정신과,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암환자 상담: 주일 오후 3:00 이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 수요일 오후

■ 양 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소천

12/29(목) 신용산 장혜령 집사 시모상 고 최경란
12/31(토) 일산 박해주 권사 모친상 고 임옥자
12/31(토) 성동광진 이은옥 집사 부친상 고 이주회
1/1(주일) 서초C 강미순 성도 부친상 고 강호규
1/1(주일) 성북 박기홍 집사 빙부상 고 민병준
1/1(주일) 마포 이수희 자매 모친상 고 이영화
1/1(주일) 가정사역 윤기식 형제 모친상 고 황일규
1/1(주일) 수원 서누리 신현종 장로 모친상 고 박색래
1/2(월) 강서 문성희 자매 부친상, 이창선 집사 빙부상 고 문청웅
1/2(월) 한강 박화선 자매 부친상 고 박수춘
1/2(월) 서초A 김성애 성도 부군상 고 성기웅
1/3(화) 수원 북누리 양현순 집사 모친상 고 김재례
1/3(화) 강남A 하종엽 집사 부친상 고 하위현
1/4(수) 마포 강현준 집사 부친상 고 강태봉
1/4(수) 수원 서누리 정수열 집사 부친상 고 정환웅
1/4(수) 수원 서누리 이주석 집사 부친상 고 이근수

20170108-1131-_2012528 -90216 17. 1. 6. 10:26 Page 20



| 선 교 헌 금 작 정 방 법 |

- 예배시간에 나눠드리는 '선교헌금 작정서'를 작성해 주세요. -

자동이체방식 (CMS)
- 소속캠퍼스, 성명,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의 생년월일 작성
- 처음 작정하시는 분은 '신규 작정란' 작성
- 기존 가입하신 분은 자동연장되며, 변경사항 있으신 분은 '변경 작정란' 작성

헌금봉투방식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작정금액 작성
- 헌금봉투 수령 캠퍼스 선택

선교재능기부 접수안내
- **창 구 접 수** (2017년 1월 8일) 온누리교회 서빙고 로비 (1F), 양재 사랑홀 로비
- **온라인접수** (연중 접수 가능) http://bit.ly/2gnipne ※ QR코드와 짧은 주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작성 가능합니다.
- **선교헌금문의** 02-3215-3616

Onnuri Community Church